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8 1997

별책 부록 : 어린이란

8 1997

청년

앞 표지:
18세의 자롱 라삐에르와 같은 활기찬 말일성도 젊은이들이 캐나다의 퀘벡에서 영적인 유산을 창조하고 있다. 그들의 일상 생활의 일부가 정통적인 역사가 되고 있다. "저는 기억합니다", 40쪽 참조
(사진 촬영: 리차드 엠 롬니)

어린이란 표지:
그림: 셰리 린 보이어 도티, *안식일 경전 공부*

일반

2 대관장단 메시지: 영감을 주는 말씀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8 자이레에서 주님의 집으로 쿠테카 카물레트
20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닌지 선택함 데일 에스 콕스
26 우리로 돌아옴
34 제때 한 바느질 페트리아 켈리
48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베스 데일리

청소년란

10 부름에 응함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16 나부의 십대 청소년: 헨리 샌더슨 윌리엄 지 하틀리
32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우로 프로페르지
40 저는 기억합니다 리차드 지 롬리
46 코끼리의 돌격 테리 레이드

정기 특별 기사

1 애독자 편지
25 방문 교육 메시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린이란 (별책 부록)

2 탐험: 위대한 도시가 세워짐 셰리 존슨
4 제시카와 몰몬경과 로 형제 러레인 화이티어
7 심심풀이
8 함께 나누는 시간: 영웅과 여장부 캐런 애쉬튼
10 이야기: 자전거가 준 교훈 앨마 제이 예이츠
14 몰몬경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심

성도의벗 1997년 8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멀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리드

고문: 스펜서 제이 콘디, 엘 라이오넬 캔드릭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 로날드 엘 나이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탭:
관리 편집인 :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 알 발 존슨
부편집인 : 데이비드 미첼, 다렌 워커
편집 보조 :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 매리앤 마틴데일
제작 보조 : 베스 데일리

디자인 스탭:
잡지 그래픽 부장 : 엠 엠 가와사끼
미술 책임자 : 스코트 밴 캠펜
디자이너 : 셰리 룩
제작 부장 :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 레지날드 제이 크리스턴슨, 데니즈 커비, 메듀 에이치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탭:
책임자 : 케이 더블류 브락스
배부 부장 : 크리스 크리스턴슨
부장 : 조이스 핸슨

통 권: 제377호, 제34권, 제8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7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원
편집인: 한상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한수

©199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8/94 번역 승인-8/94 August. 1997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7988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21,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27,000원, 3지역(중동 등) 35,400원, 4지역(중남미 등)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14.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01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델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대관장단이 일깨워 주시는 것

영감에 의해 전하는 대관장단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온 세계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 관해 알게 됨으로써 저의 간증은 강화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감사드립니다. 이 잡지는 저의 삶과 저의 가정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실리아 곤잘레스
캘리포니아 산타 에나 사우스 스테이크
비에호 선교부 제5지부

앨리스 스프링즈의 모범

1996년도 3월호의 *데르 스테른*(독일어 판)에 실린 "앨리스 스프링즈"의 기사는 저를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잡지를 여러 번 들었다 놓았다 하며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에 나오는 젊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봉사하는 모범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계속하여 강건하고 충실하게 주님의 사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셀라 루드빅
독일 라이프치히 스테이크
호헨스타인 에른스탈 지부

선교 도구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는 동료에게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 구독권을 주었습니다. 석달 후에 그 친구는 침례 받고 지금은 충실한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저는 항상 이 잡지에 실린 것들을 구도자에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거기 실린 기사들은 언제나 흥미로워서 구도자들에게 매우 강한 영을 느끼게 합니다. 사용만 한다면 이 잡지는 훌륭한 선교 도구가 됩니다.

게베지에르 장로
브라질 레시페 선교부

지속적인 계시

라 스텔라(이탈리아어 판)를 읽는 시간은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계시를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제가 이 잡지에서 영감을 받은 말씀들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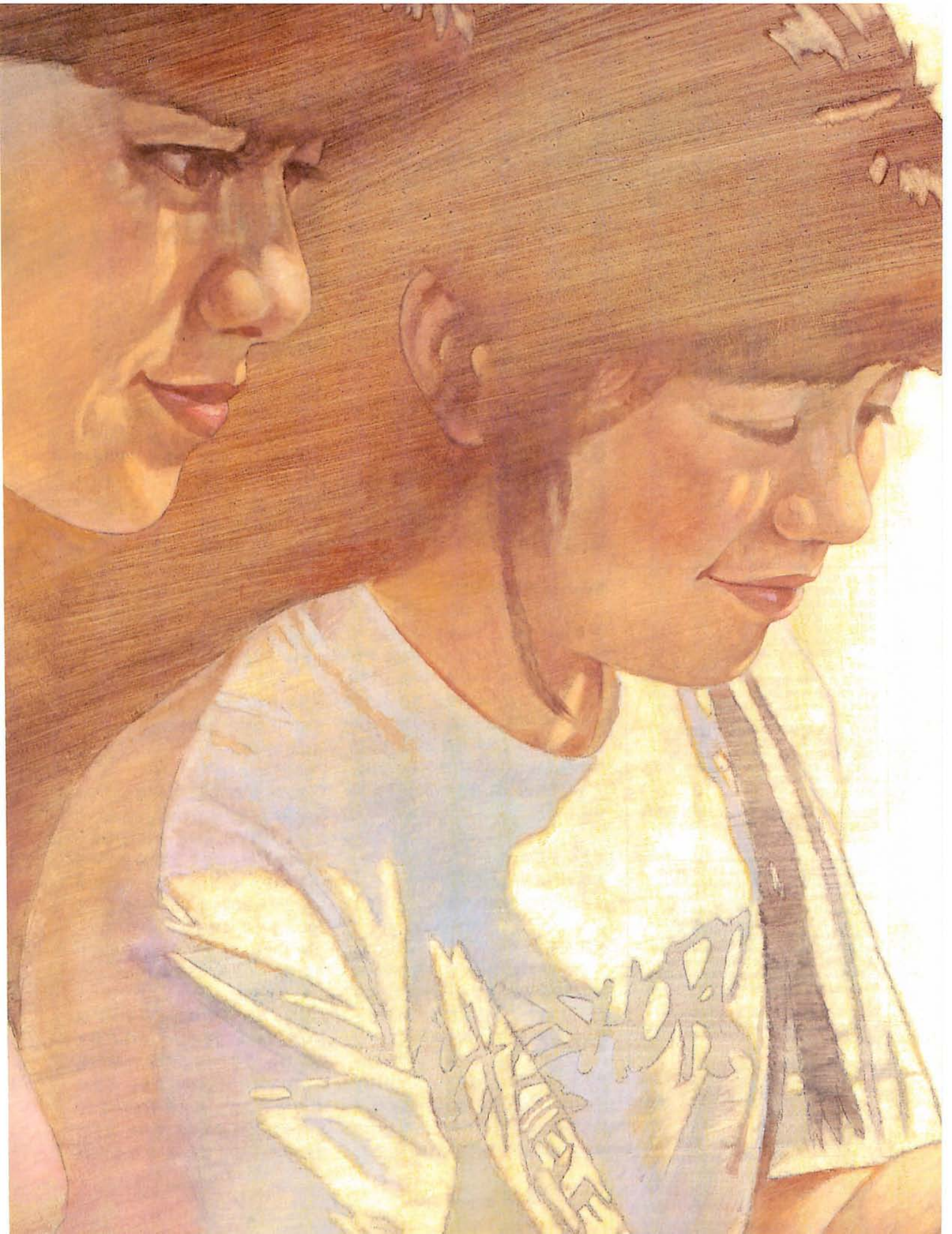
저는 특히 1996년도 11월호에 실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쓰신 "엘리야의 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계보 사업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사업을 충실히 행할 때 우리는 가족이 영원히 하나가 된다는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우라 칼리
이탈리아 밀라노 스테이크
밀라노 제 1와드

성도의 벗 질의 응답란은 청소년 독자들이 아래의 질문에 답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1997년 10월 1일) 이전에 도착되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성명과 주소 및 소속 와드와 스테이크(지부와 지방부) 명칭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울 성동구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질의 응답란
- 우편 번호: 133-600

질문: 저는 가족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언니는 활동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가정이 보다 행복하고 영적인 가정이 되도록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영감을 주는 말씀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간증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인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세상의 죄를 위해 속죄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신 그분에 대한 살아 있고 생생하며 활기찬 간증과 지식을 키워 주는 것입니다. 저는 회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구세주에 관한 간증을 꾸준히 키우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에 대한 참된 증거를 가질 때마다 일어나야 할 다른 모든 일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말일성도로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미덕이 솟아오르는 뿌리입니다."(유타 프로보, 신권 지도자 모임, 브리감 영 대학교의 기혼자 지역 대회, 1996년 2월 10일)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세상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하고 활기찬 간증과 지식을 키워 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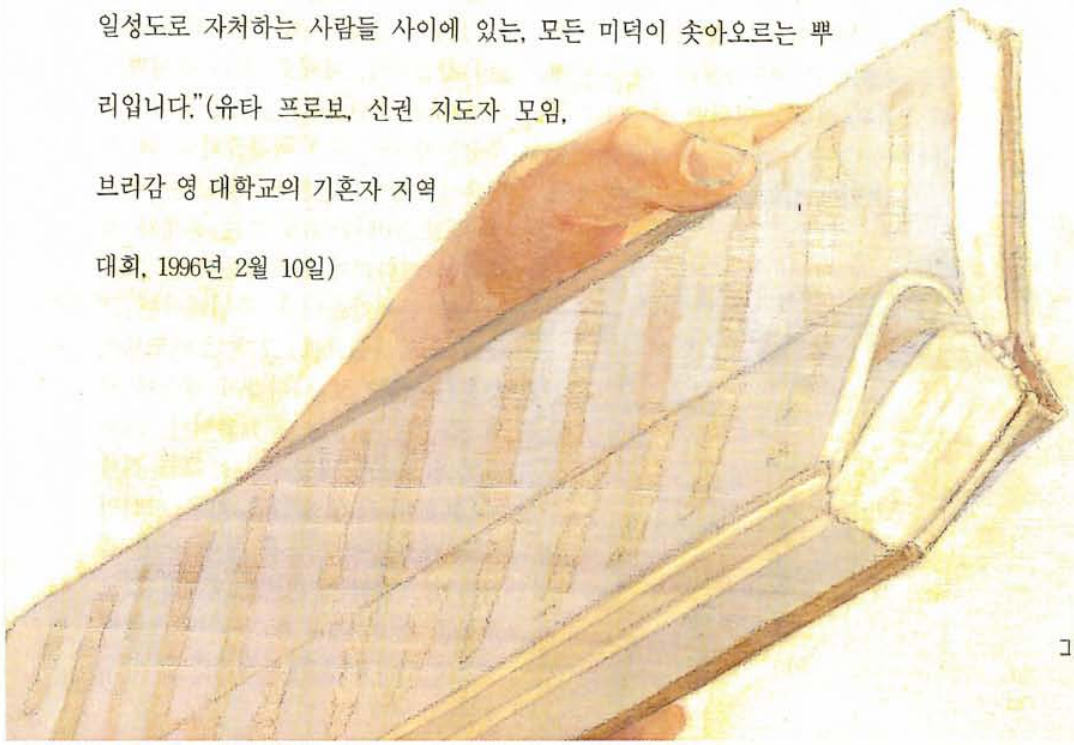


그림: 델 파슨, *그가 살아나셨도다*;
삽화: 로버트 티 베렛

속죄

"이 사업의 신성함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죄로 인하여 만인에게 미치는 가장 값진 결과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주어지며, 더 나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승영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잉글랜드, 노팅엄, 노변의 모임, 1995년 8월 30일)

행복의 길

"주님의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범법이나 죄나 불순종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길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을 믿습니다. 몰몬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생활할 때에는 행복하고 번성하지만, 죄에 빠져들 때에는 불행과 전쟁과 궁핍과 곤란을 겪었다. 이 놀랍고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주제는 몰몬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참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회원들을 위한 행복의 길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하와이, 오아후, 지역 대회, 1996년 2월 18일)

우리는 성약의 백성임

"우리는 성약의 백성이며 그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 사업을 회복하시고 그 목적을 밝히시면서 회복의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의 영원한 성약을 세우는 것 또는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경륜의 시대에 영원한 성약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침례받으면서 성약을 맺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분의 가족이지만, 특정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성약의 자녀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 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것을 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그분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이며 그러한 성약을 맺는 의무는 위대한 것입니다."(덴마크, 코펜하겐, 노변의 모임, 1996년 6월 14일)

요셉 스미스의 신앙

"요셉은 소년일 때 [성스러운 숲으로] 갔습니다. 때때로 저는 주님께서 왜 14세의 소년을 그 숲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왜 주님은 [요셉이] 연륜에서 나오는 권위를 가질 20세나 30세 또는 4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으며 그가 소년으로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질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바로 자신이라고 하였으며, 기도를 통해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모르지만 그가 주

님께 여쭈어 보았으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거나 짧더라도 요셉 스미스는 그 몇 분 동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제까지의 박식한 모든 신학자들이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뉴욕, 로체스터, 선교사 모임, 1996년 7월 12일)

가족 선언문

"왜 우리는 지금 가족에 대한 이러한 선언문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가정이 공격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향상되기 시작하는 장소는 가정 안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배운 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일본, 동경, 기자 회견, 1996년 5월 18일)

배우자 학대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아내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어머니인 자신의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신권을 지닐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반자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늘 왕국의 가장 높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덴마크, 코펜하겐, 노변의 모임, 1996년 6월 14일)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놀랍고 위대하고 선한 일을 행할 잠재력을 내부에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중단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에게 해가 되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린 옆길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의의 일을 행하십시오.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찬송가* 177장 참조] 여러분이 참석한 파티의 분위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작별 인사를 하고 그 곳에서 나오십시오. 똑바로 서서 옳은 것을 행하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콜로라도, 덴버, 청소년 모임, 1996년 4월 14일)

교육

"우리는 교육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우리 회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교회에서 더욱 활동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 심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배우지 못하고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연구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더욱 활동적인 회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것은 제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것은 의미 심장한 어떤 것을 알려 줍니다."(런던 뉴스 서비스의 로렌스 스파이서와의 인터뷰에서, 1995년 8월 28일)

축복사의 축복

"저는 우리가 축복사의 축복의 중요성을 이해할 만큼 성숙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도록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을 제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것 중의 하나로 여깁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그것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하고 거룩하며 개인적이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특별히 감독단에 계신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와드의 회원들에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축복사 여러분들이 축복사로서의 거룩한 부름을 이행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얹을 때 주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권의 권능과 축복사의 직분과 부름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사의 축복은 참으로 특별하고 개인적이며 경이로운 것입니다."(유타, 스미스필드-로간,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1996년 4월 20일)

선교사로 봉사함으로써 주어지는 유익

"지난 세월 동안 제게 일어났던 모든 좋은 일들은 이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 예배당 재헌납식 노변의 모임, 1995년 8월 27일)

성전 및 성전 결혼

"참으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건물[성전]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모든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 구조는 단지 목적을 위

한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시설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계시해주신 거룩한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고 헌납되었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의식 가운데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의식도 포함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결심을 하시기를, 즉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독신 성인 노변의 모임, 1996년 3월 24일)

청녀들에게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청녀들에게 여러분이 생활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위치에 대해 조금도 열등감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며,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분의 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똑바로 들고 곧게 서서 의와 신앙과 덕과 진리 속에서 걸으며 아무도 여러분을 낮추거나 얕보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사랑하는 청녀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한 상속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도 열등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계획 하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 위대하고 거룩한 계획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과 활동 분야와 임무와 우리 내부의 선한 자질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아이다호, 렉스버그, 릭스 대학 지역 대회, 1995년 10월 29일)

안식일을 지킴

"안식일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그 안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사업의 위대한 정점을 상징합니다. 그 일을 마치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살펴보시고 좋게 여기셔서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것을 삼가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런 조그만 일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모범을 지켜 보는 자녀들을 위해 이 세상을 전연 다르게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사는 어떤 지역에서도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일이 없게 하십시오."(노스 캐롤라이나, 샬로테,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1996년 2월 24일)

경건

"우리는 성찬식을 강화하고, 실제로 예배 시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의 영을 키우고, 사람들이 예배실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조용하고 경건하며 사색적인 태도를 갖도록 장려하십시오. 성찬식이 너무나 소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사교적인 사람들이지만 예배실 안에서는 그렇게 큰소리로 교제를 나누지 않기 바랍니다."(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지역 대회, 1996년 4월 27일)

항상 복음대로 생활함

"여러분이 속한 종교는 매주 7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요일 하루 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위를 나눈 계획도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세 시간 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참여하는 시간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간, 즉 하루 24시간, 주 7일, 일 년 365일을 위한 것입니다."(유타, 파로완, 청소년 노변의 모임, 1996년 1월 13일)

인생의 의미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또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영원한 계획의 일부로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목적을 갖고 살았으며, 이 생은 경력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과, 언젠가 우리는 장막을 지나겠지만 계속 전진하고 발전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결과로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우리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독신 성인 노변의 모임, 1996년 3월 24일)

자녀들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12]고 명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사랑과 이해심과 훈련과 지혜를 부모로부터 구할 필요가 있

습니다."(*처치 뉴스*, 1995년 6월 7일)

가족 기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으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족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게 하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더 훌륭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 그렇게 행한다면, 그들은 마음속에 감사의 정신을 지닌 채로 성장할 것입니다."(일본, 오끼나와, 나하 스테이크와 오끼나와 군인 지방부 노변의 모임, 1996년 5월 20일)

죽음

"죽음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슬픔에 잠기겠지만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앞에 놓인 위대한 사업을 계속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의롭고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경험임을 확신합니다."(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해리 브이 브룩스의 장례식에서, 1996년 2월 23일)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주님은 자신의 종들이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4)

2. 여기에 나온 인용문 중에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가정의 개인과 가족을 강화시키고 축복해 줄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한다. □

자 이 레 에 서 주

쿠테카 카물레트
그림: 제리 톰슨

나는 아내인 남봐 므보와 두 아들인 카밤바와 카물레트와 함께 중앙 아프리카의 자이레에 살고 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교회 회원이다. 세째 아들인 붐비는 1996년 12월에 죽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잡지에서 성전에 가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는 회원들에 관한 기사를 읽곤 한다. 나는 그들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기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놀라워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일이 내게 생기리라곤 전혀 예기치 못했었다.

킨수카 시에 있는 우리 집은 남아 공화국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성전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하곤 했다. *왜 성전 추천서를 발급 받아야만 하지? 가지도 못할텐데.* 하지만, 1994년에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은 합당한 모든 말일성도들은 성전 추천서를 발급 받도록 권유하셨다.(*성도의 벗*, 1994년 6월호 참조) 난 그 분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지부장에게 접견을 요청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축복을 마련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나는 자이레 의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어느 정부 요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1995년 말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북한에 갈 수 있는 초대를 받았다. 그는 이 공식적인 여행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하였다. 그를 대동할 수행원의 명단에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정부는 그 계획을 인가해 주지 않았다. 이 거부로 말미암아 나의 상관은 인가를 받아 내기 위해 오랜 기간의 협상을 거쳤다.

나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계획이 인가될 것과 내 이름이 명단에 그대로 남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4개월이 지난 후, 인가가 났는데, 명단에는 단지 상관과 나, 그렇게 단 두 사람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는 매우 기뻤다. 하지만, 북한에는 성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띄게 될지는 알지 못했다. 여행이 인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가슴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 "지체하지 말라! 여행 경로에 스위스가 포함될 것이니라." 그때서야 스위스 성전에 아마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곧바로 상관에게 가서 스위스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갔다 오자는 제안을 했다. 그가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비행기 표와 우리가 가게 될 모든 지역의 비자를 받도록 준비했다. 마침내 우리의 비자가 도착했다. 나는 모든 나라에서는 잠시 머물 통과 비자를 받았지만, 스위스에서는 한 달 간 머물 수 있는 여행 비자를 받았다.

우리는 자이레를 떠나 북한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줄곧 나와 함께 하셨다. 그분은 내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고 회복된 복음의 좋은 모범이 되게 하셨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뜻한 차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북한 관리들이 함께 배석할 때면 찻잔이나 커피컵, 또

님 의 집 으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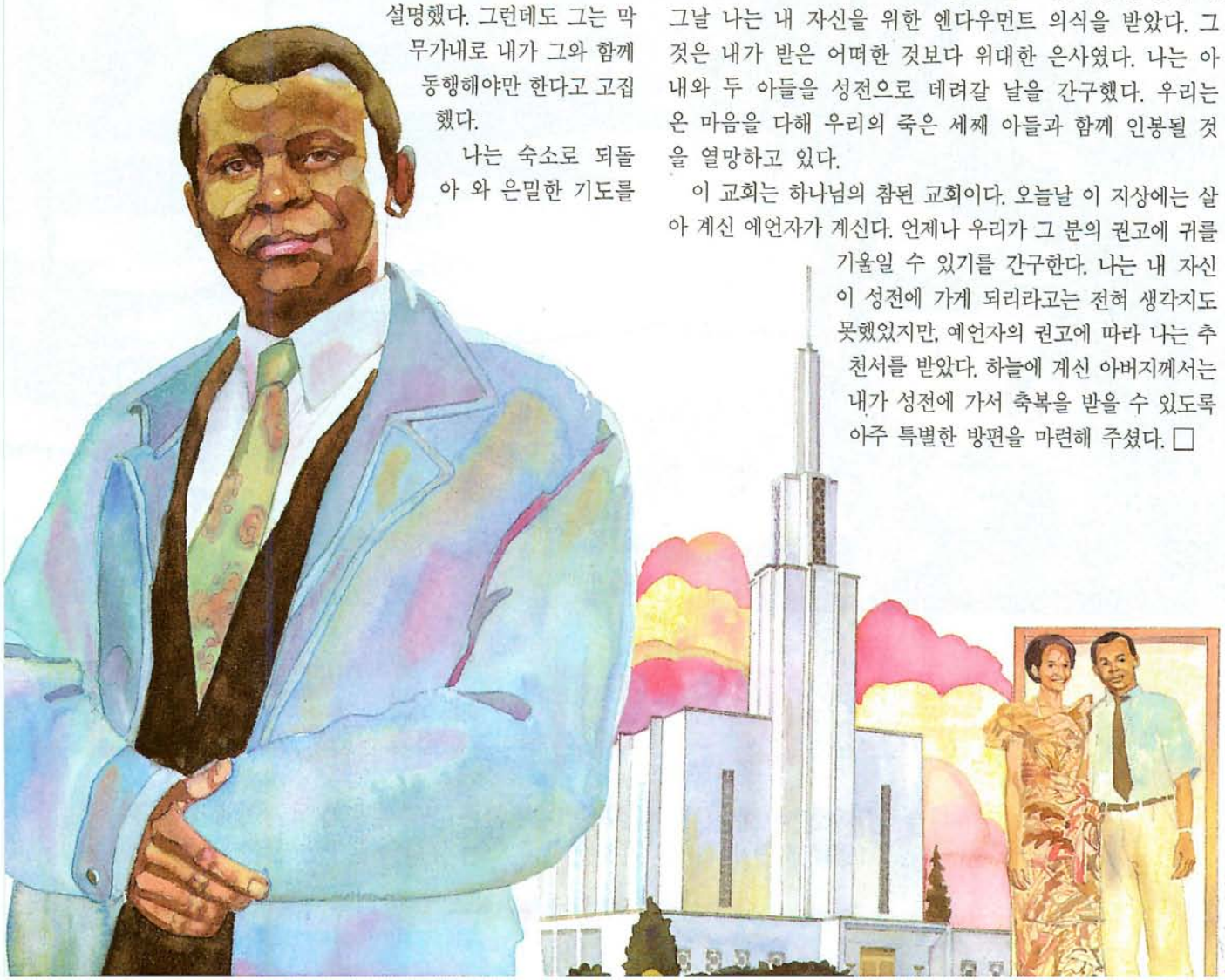
는 포도주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나는 물잔이나 우유잔을 들고 건배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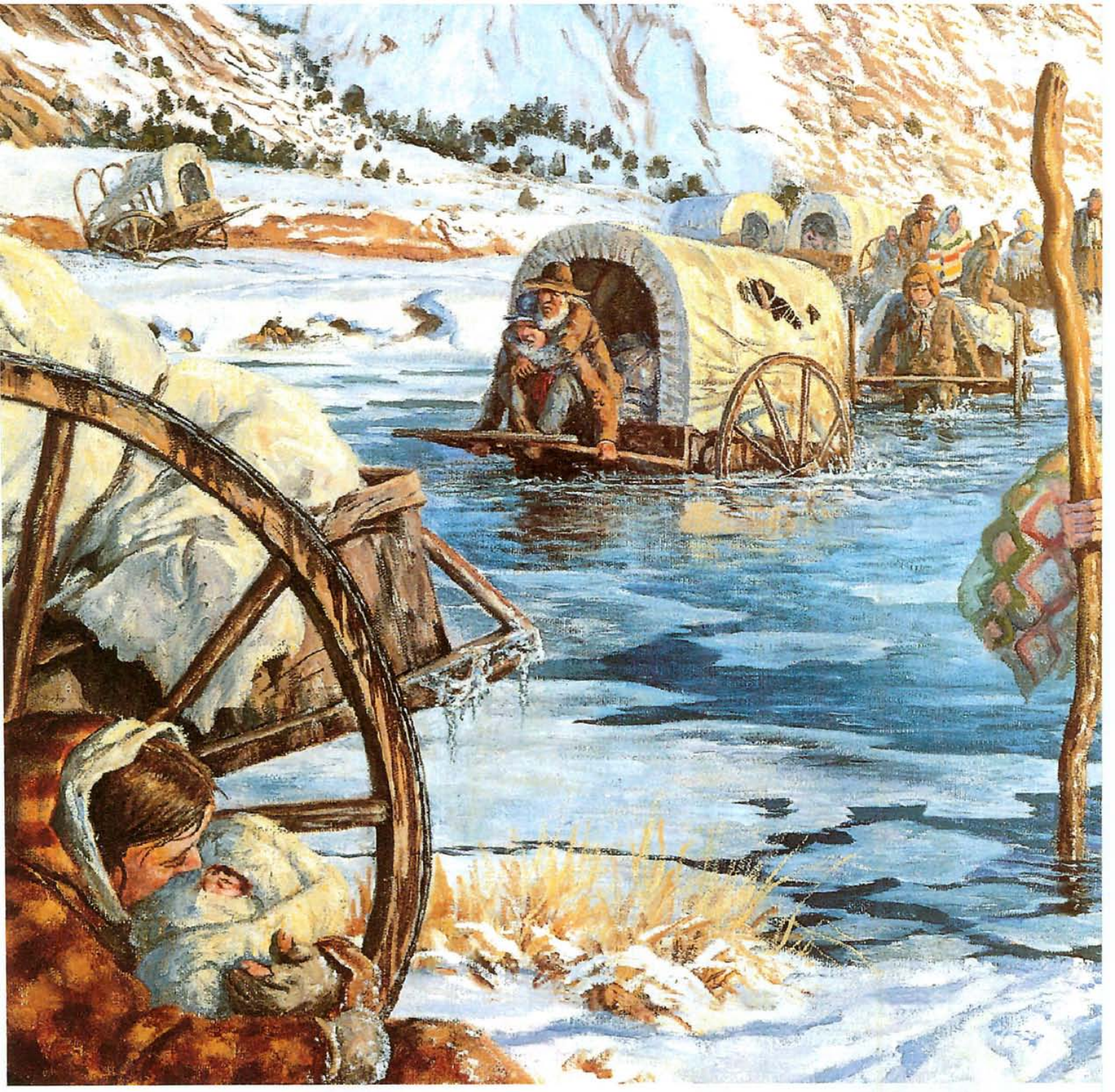
북한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친 우리는 중국을 경유하여 스위스로 날아가 제네바에 도착했다. 자이레의 교회 지도자 한 분이 내게 제네바에 도착하는 대로 교회 회원인 리믈리 형제에게 연락할 것을 제안했었다. 나는 그 다음날 리믈리 형제를 만나 그와 함께 스위스 성전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내 상관은 내가 스위스의 다른 도시인 로잔느로 그와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나는 그에게 그 다음날에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런데도 그는 막무가내로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해야만 한다고 고집했다.

나는 숙소로 되돌아 와 은밀한 기도를 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관은 내게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내가 그 분과 동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베른으로 가서 리믈리 형제를 스위스 성전에서 만났을 때, 내가 느꼈던 겸손과 감사가 얼마나 컸던가! 나는 건물의 아름다움과 장중함에 큰 감명을 받았다. 나는 모든 성전 봉사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나를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집에 온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리오 브이 베이라 성전장과 그의 부인인 베이라 자매가 보여 준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나는 내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받은 어떠한 것보다 위대한 은사였다. 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성전으로 데려갈 날을 간구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죽은 세째 아들과 함께 인봉될 것을 열망하고 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다. 오늘날 이 지상에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계신다. 언제나 우리가 그 분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구한다. 나는 내 자신이 성전에 가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지만, 예언자의 권고에 따라 나는 추천서를 받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성전에 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 □





부 름 에 응 함

1856년에 젊은 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강의 추위에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1997년 현재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유혹의 홍수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이며 본부 청남 회장임

그림: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지원자들에 의해 구출된 마틴 손수레 부대

1846년부터 기차가 유타에 들어온 1869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 회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을 향하여 대평원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차로 도보로 여행했습니다. 1856년부터 186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간을 작은 손수레에 싣고서 밀고 끌었습니다. 힘겹고도 머나먼 여행이었습니다. 계곡에 도착한 성도들은 지치고 병들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도에 되돌아갔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죽었습니다.

1856년 10월 연차 대회 기간 중에,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가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이 솔트레이크에 전해 졌습니다. 그들은 늦게 출발하였고, 안타깝게도 때마침 와이오밍 평원에서 초겨울 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대회를 연기하고 건장한 남자들을 소집하여 급히 보급품을 모으고 구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사경에 빠진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 솔트레이크를 출발한 많은 용감한 사람들 가운데는 시 앨런 헌팅턴, 조지 더블류 그랜트, 데이비

드 비 킴볼, 스티븐 더블류 테일러라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출발할 당시,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혹은 자신들이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어떠한 기여를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스위트워터 강 언덕에 다다랐을 때, 이 젊은 구조자들은 손수레 대대가 46센티미터나 쌓인 눈 속에 빠져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그 무리의 모두가 너무 허약하여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력은 소진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동상과 저체온증에다 극심한 피로에서 오는 증상을 심하게 겪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이 강건한 젊은이들은 전에 누구에게도 요구되지 않았던 막중한 희생을 감당해 냈습니다. 그들은 수차례 반복해서 대대의 일행들을 안고서 살을 에이는 강을 건너 반대쪽으로 옮겼습니다. 드디어 반대쪽으로 모든 일행들을 무사히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 일행이 피난처를 찾아 마침내 솔트레이크 계곡에 이르는 남은 길을 무사히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젊은이들의 몸은 비록 젖고 추위로 큰 고통을 받았으나 그들은 어느덧 그 시대의 영웅의 대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결점과 미흡함과 그들만의 문제, 두려움, 약점 등을 가진 평범한 젊

오늘날의 아론 신권을 지닌 청소년 여러분은 자신을 바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자 하는 용기나 능력이나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은이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언자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시고자 찾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용기에 있어 뒤떨어지지 않음

저는 오늘날의 아론 신권을 지닌 청소년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자 하는 용기나 능력이나 기꺼이 하려는 마음에 있어 결코 뒤떨어 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진 촬영: 스티브 벤딘슨

여러분은 시 앨런 헌팅턴, 조지 더블류 그랜트, 데이비드 비 킴볼, 스티븐 더블류 테일러 등이 치렀던 것과 같은 희생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서 요구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르는 희생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집사, 교사, 제사의 직분을 가진 청소년들은 아마도 손수레 생존자를 안고서 살을 에이는 강을 건너야 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지금까지의 어떠한 세대보다도 세상의 유혹을 견디어 내는 능력에 대한 혹독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영화나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음악, 의복의 유행, 잡지, 책, 심지어 신문까지도 때로는 미묘한 때로는 조악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용납된다는 것을 수긍케 하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검은 것을 희다하고, 나쁜 것을 좋다고 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세상의 거짓들은 더 이상 표준이라는 것은 없으며, 아무도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에도 상관하지 않으며, 책임질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도전은 어느 모로 보나 1856년의 그 용감무쌍한 젊은이들이 직면했던 얼음강물과도 같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강에서 그들의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시험이나 유혹들 또한 죽음, 곧 영적인 죽음을 가져 올 만큼 강력한 것들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우리가 더 이상 슬픔도 연민도 형제애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성장하고 발전하여 더욱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유익하고 훌륭한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 오는 일종의 죽음입니다.

이같은 극심한 유혹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자신들의 가정에서 의롭고 사랑스러운 지도자가 되며, 주님의 권능으로 집행되는 결혼에 의해 영원히 맺어지고 성전 의식들을 지키고 소중히 함에 따라 주어지는 축복을 받는 부부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을 아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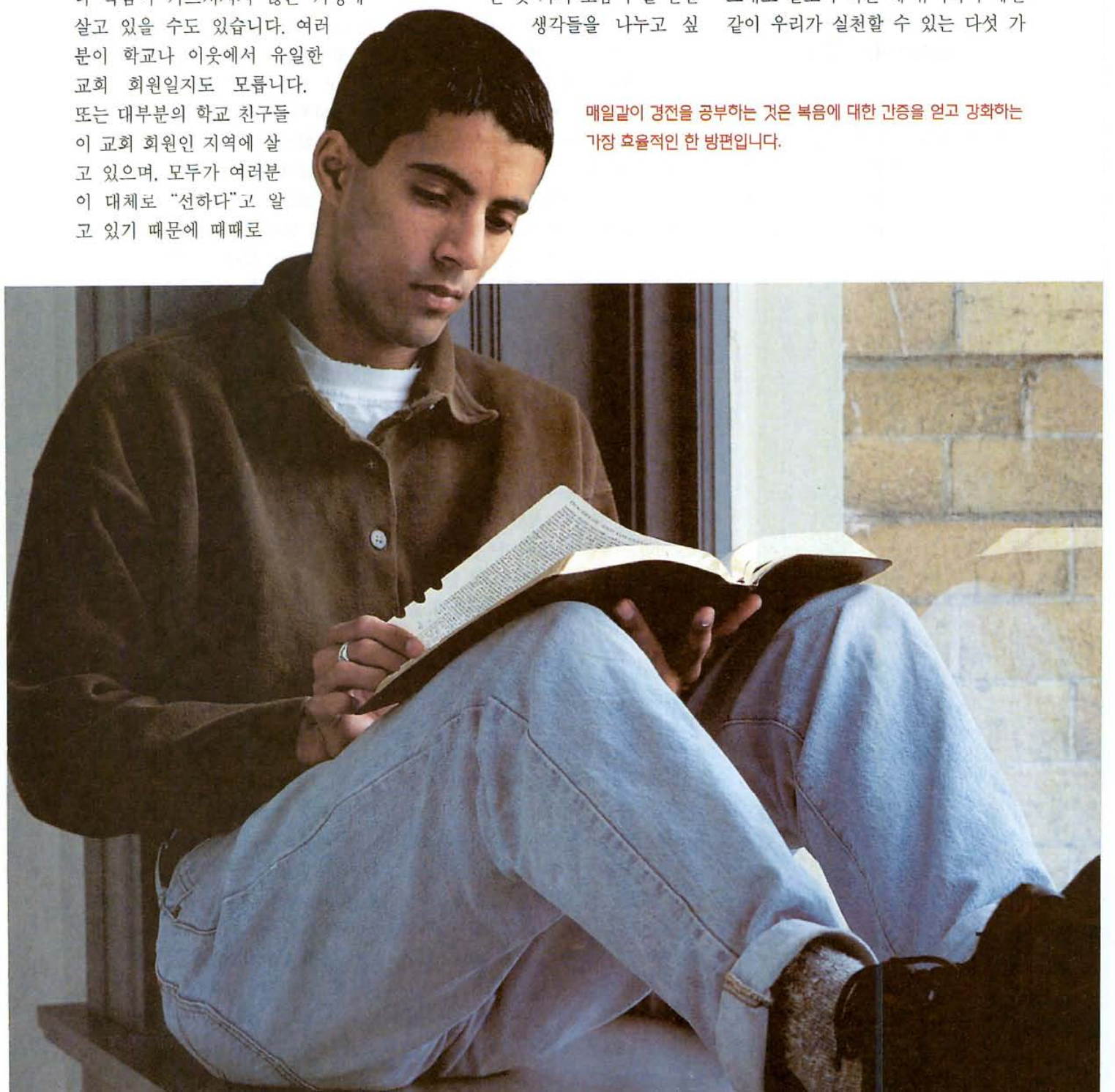
많은 젊은이들이 부도덕이나 성적인 범범으로 인해 복음 선교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 내는 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아름다운 경험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같은 범법을 포함하는 생활 양식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신권 성임을 합당하게 받거나, 또는 그러한 신권의 권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거나, 또는 이것이 곧 지상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업임을 증거하는 성신의 확인을 받는 것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릇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극복함

따라서, 우리는 현대 사회에 널리 퍼진 이러한 매체들의 거센 영향력이 미치는 부정적인 해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가치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쉬운 것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또한 언제나 성공적일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쉽게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일수도, 또는 남들보다 더 힘겨워 하는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도

덕한 영화를 보게 하거나, 품격을 떨어뜨리는 책들을 읽게 하고, 또 온갖 종류의 부도덕한 행동에 개입하도록 부추기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복음대로 살지 않거나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는 가정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나 이웃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대부분의 학교 친구들이 교회 회원인 지역에 살고 있으며, 모두가 여러분이 대체로 "선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쉽게 "비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견디어 내고 믿음에 충실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생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어디에 살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든, 또는 복음 진리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데 유익하며 매일같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



매일같이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고 강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한 방편입니다.

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제게 도움이 되었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왔기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원리들이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요, 밤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에게 커다란 위안과 축복을 가져다 주며, 여러분이 초등협회, 주일학교, 아론 신권 정원회에서 배운 교훈들을 충실히 지키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어, 여러분 생활 속에서 큰 힘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매일같이 남을 위한 봉사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동시에 사물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귀중한 관점을 갖추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알아 내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행위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만일 젊었을 때 여러분이 이 일을 하려는 열정과 능력을 키운다면, 그것들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셋째, 복음 진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은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130편 1절에서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매일 매일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나를 평가해 보고 내일은 더욱 순종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는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들이 주신 계명들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그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분들의 목적임을 스스로 배우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일상의 삶에서 기도와 경전 공부, 복음 진리에 대한 상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살고자 애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진실로 존재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재확인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빛을 빌어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고 우리의 최선을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만 할 그날이 오리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다섯째, 매일같이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고 강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한 방편입니다. 아직 이에 대해 확신이 없겠지만, 이미 경전에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해결책은 직접적인 예를 통해 주어지거나, 또는 규칙적인 경전 공부를 통해 받는 영감과 지시를 통해 주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원리들을 삶에 적용시켜 볼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어린 나이에 경전을 매일 읽는 습관을 키운다면, 여러분은 지혜, 이해력, 영성, 동정심 등이 증대되며, 충만한 삶의 축복을 평생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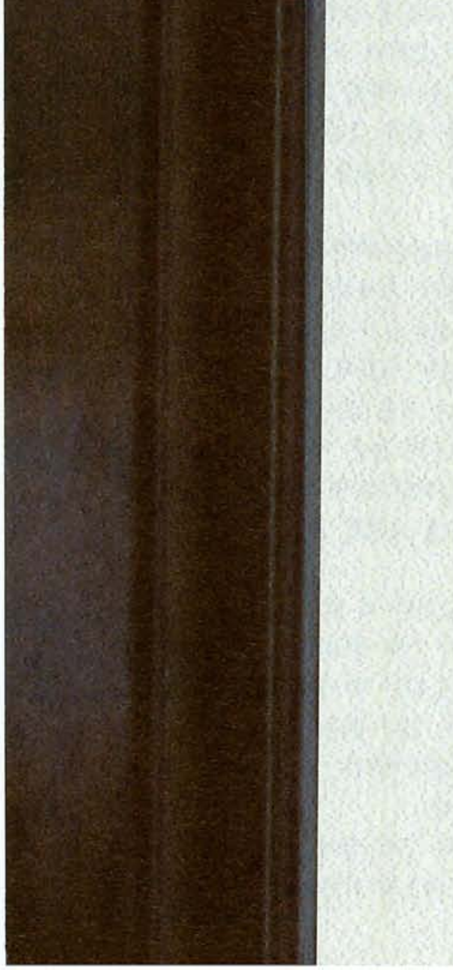


사진 촬영: 제드 클락

도전을 감당함

젊은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신권 지도자, 교사, 또는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보상이 주어지기를 열망합니다. 그 보상이란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 영원히 그분들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갈망하며, 앞에 가로 놓인 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나부의 십대 청소년: 헨리 샌더슨

윌리엄 지 하틀리

헨리 샌더슨은 열세 살 되던 해에 코네티컷 주에서 일리노이 주 나부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인지 바퀴 달린 보트를 타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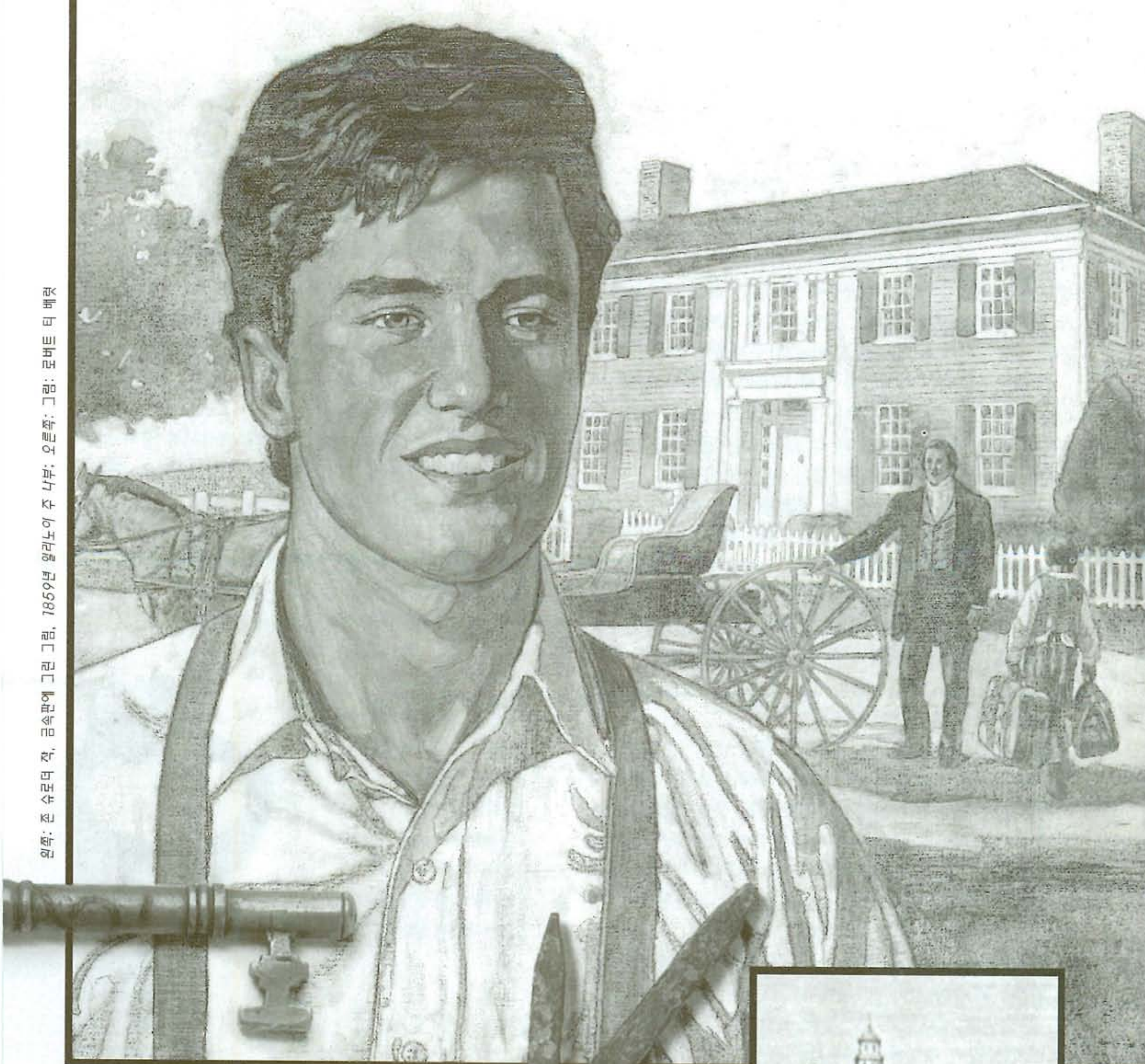
그날은 1842년 9월의 어느 가을 날이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삼림은 온갖 붉은 색과 금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헨리는 부모님을 비롯한 두 어린 동생들과 함께 엘러게이니 산맥을 넘어 가는 기차에 올랐다. 여느 기차와 다름없는 증기 기관차였지만, 실제 객차들은 기차 바퀴 위에 실려 있는 보트였다. 산정에 가까이 이르자, 승무원들이 엔진을 갈고리에서 풀어 내고 차량들을 케이블로 단단히 묶었다. 정상에 설치된 모터가 케이블을 감아 올리자 열차가 끌려 올라갔다. 산정에서 역무원들은 케이블을 풀어 내고 아무런 기관도 달지 않은 채 산맥의 건너편으로 활강해 내려 가도록 했다. 그리곤 마지막으로 헨리의 기차-보트(역주: 객차 차량들을 견인 보트에 실은 것) 모험을 위해서, 역무원들이 기차 바퀴를 제거하고 기차-보트를 수로에 두었다. 배를 끄는 길에 서 있는 말들이 헨리가 탄 기차-보트를 끌고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를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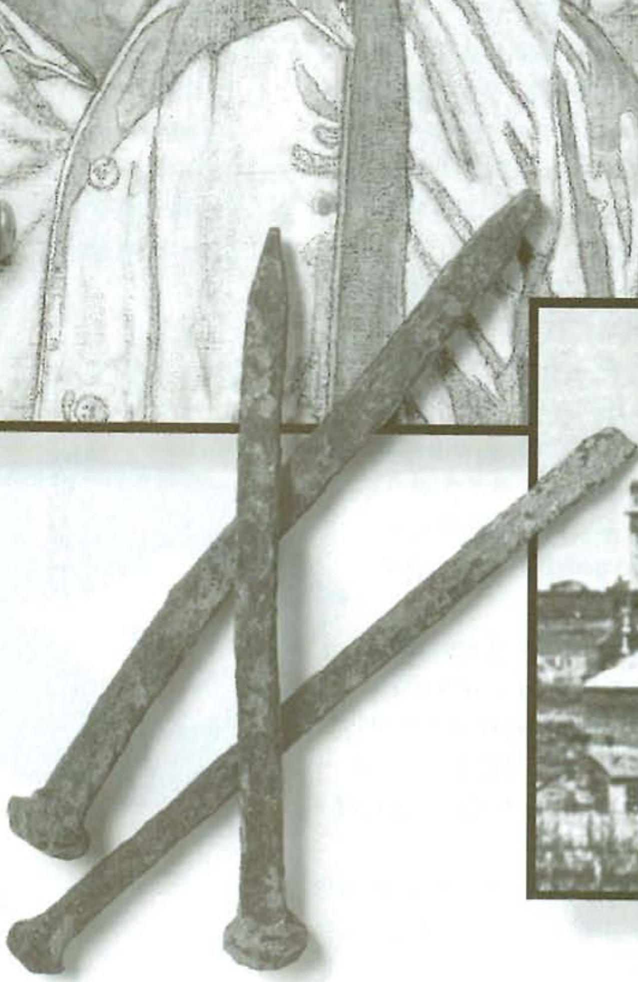
헨리는 그가 피츠버그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곳에서 그는 단지 그 겨울을 보냈다. 헨리의 부모인 제임즈와 메리 재인 샌더슨은 수개월 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한 후, 나부로 이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헨리는 부모님이 침례 받은 후로 코네티컷 주 노와크에 있던 동네 아이들이 자신을 놀려댔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이 오히려 기뻤다. 피츠버그에서 헨리는 아빠를 도와 구두 수선의 일을 했다. 그래서 그는 아빠로부터 그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그 다음해 늦은 봄녘에, 샌더슨 가족은 증기선에 올라 거친 물살을 일으키면서 오하이오 강을 타고 내려간 후 미시시피 강을 따라 올라 갔다. 이들 가족은 헨리가 열네 살이 되던 1843년 여름에, 생긴 지 채 4년도 되지 않은 나부 시에 도착했다. 신흥 도시인 나부는 새로운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간간히 높은 벽돌집들이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이 나무로 만들어진 나지막한 건물들이었다. 서쪽으로 미시시피 강이 도시를 초생달 모양으로 끼고 돌면서 흐르고 있었다.

헨리의 가족이 나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헨리는 낭떠러지를 타고 올라 성전 건축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일꾼들이 쌓아 올린 60센티나 되는 벽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층을 교회 본부로 사용하고 있던 붉은 벽돌 상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시내의 중심가에서 헨리는 벽돌집인 우체국과 매라웨더 상점을 볼 수 있었다.

샌더슨 가족은 강에서 두 구획 떨어진 중심가의 어느 집에 살게 되었는데 요셉 스미스의 이웃이 되었다. 헨리의 부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요셉 스미스의 이웃으로 소년 헨리 샌더슨은 예언자의 아들들과 함께 놀았다. 그와 부친은 열흘에 한 번 나부 성전 공사장에서 일함으로써 십일조를 내었다.

왼쪽: 존 슈로더 작, 금속판에 그린 그림, 1859년 일리노이 주 나부; 오른쪽: 그림: 로버트 티 배럿

모는 시드니 리그돈의 집 옆에 있는 통나무 집으로 이사했다. 요셉 스미스의 새 저택인 맨션 하우스는 시드니 리그돈 집 바로 옆에 세워졌다. 일꾼들이 이 맨션 하우스의 끝마무리 손질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다. 요셉 스미스는 9월에 완공된 맨션 하우스를 호텔로 일반에게 공개했다.

헨리는 예언자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았다. 그 중 헨리보다 나이가 세 살이나 많은 요셉 스미스 삼세가 제일 맏이였다. 헨리는 또래인 시드니 리그돈의 아이들, 알그논과 존 더블류 리그돈과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나부에서 어른들과 소년들이 열흘에 한번 건축 공사장에서 일함으로써 십일조를 내는 것으로 대신했다. "아버지와 나는 열흘에 한번 빠짐없이 성전, 때로는 채석장, 어느 때는 성전 부지에 가서 일을 하였다."라고 헨리는 기록하고 있다.

예언자를 개인적으로 알았고 좋아했던 헨리는 "예언자의 집에 자주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때로 그러한 놀이에 예언자도 끼어 들곤 했다. 나는 예언자가 선수로 참가한 공놀이를 함께 하기도 했었다."

헨리가 열다섯 살이 되던 해에, 요셉 스미스가 카테지 감옥으로 갈 때 그는 집 밖에 있었다. 헨리는 요셉이 한 낯선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지팡이를 맞바꾸는 것을 보았다. 그런 후에 요셉은 떠나갔다. 그것이 헨리가 살아 있는 예언자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카테지 감옥에서의 비보를 처음 듣게 된 사람은 헨리였다. "어떤 이가 우리 집을 달려 지나치면서 '예언자가 살해되었다' 라고 소리쳤다."

하루 이틀이 지난 후, 헨리는 수많은 조문 행렬에 섞여 맨션 하우스를 찾아 갔다. 그 곳에서 "나는 카테지 감옥에서 옮겨 온 그들의 살해당한 시신들을 보았다." 그들의 죽음으로 "아버지는 깊이 애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심히 상해 있었다." 헨리는 그때를 회상했다. "얼마간 아버지는 어떻게 사태가 진전될 것인지 하는 일로 혼란스러워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합당한 지도자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수입이 필요하던 차에 헨리와 아버지는 일거리를 찾아 미주리 주의 세인트 루이스로 강을 타고 내려갔다. 아버지는 25명의 직공을 고용하고 있던 조지 베츠의 신발 가게에 고용되었다. 헨리는 세 명의 말일성도 구두공이 속한 작은 가게에 취직되었다. 모친과 누이들도 봄에 세인트 루이스에서 합류했다.

나부로부터 헨리의 좋은 친구들이었던 알거논과 존 리그돈은 그들의 집으로 찾아왔다. 요셉 스미스의 보좌였던 그들의 아버지가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으며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로 이사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던 중에 나눈 마지막 대화에서, 그 소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성실한 자들임을 알았기에, 나는 수년 동안 그들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으나 결국 실망하고 말았다."하고 헨리가 기록하고 있다.(존 리그돈은 죽기 직전인 1904년에 교회에 재입교했다.

베츠씨는 헨리의 아버지에게 그 전해 미시시피 강이 범람하여 수몰되었던 농장에 가서 일하도록 했다. 샌더슨 가족은 그 곳으로 이주하여 "아주 좋은 통나무 집"에서 살았다. 그들은 땅을 갈아 곡식을 심었다. 그 결과 농장은 번창하였다. 그런데 온 가족이 여름의 열기와 어떤 병(아마 말라리아일 것임)에 걸려 앓게 되었다. 헨리의 아버지는 가장 심하게 앓다가 41세의 나이로 1845년 9월 16일에 별세했다.

헨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신발 만드는 일을 배웠다. 나중에 그는 브리감영 대관장(아래쪽)이 500명의 지원자들이 입대할 것을 권했을 때 몰몬 대대에 들어갔다.

6월 4일에 이제 열여섯 살이 된 헨리는 어머니와 어린 누이인 메리를 데리고 나부로 되돌아갔다. 그보다 나이 많은 누이인 마리아는 남아 베츠 가족의 가사를 도왔다.

병을 앓아 허약해진 몸을 무릅쓰고 헨리는 누이를 데리러 세인트 루이스로 되돌아갔다. 그는 여러 배에서 일한 품삯으로 왕복할 수 있었다. 하행 뱃길에서, 그는 보조 화부로 화목을 나르고 화물을 부리거나 싣는 일을 했다.

나부로 돌아가는 뱃길에서, 헨리는 삼등 요리사로 "선실 접시들을 닦아야 했다. 그 접시들을 선실 사환들이 가져다 주었다." 헨리는 그 일을 즐겨 했다. 왜냐하면, 그가 남겨진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평소에 먹는 음식보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접시들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은 상태로" 돌아왔다. 그럴 때면, 지시된 대로 음식을 배 밖에 쏟아 버리기 보다는 선실 사환들이 그것을 먹게 내버려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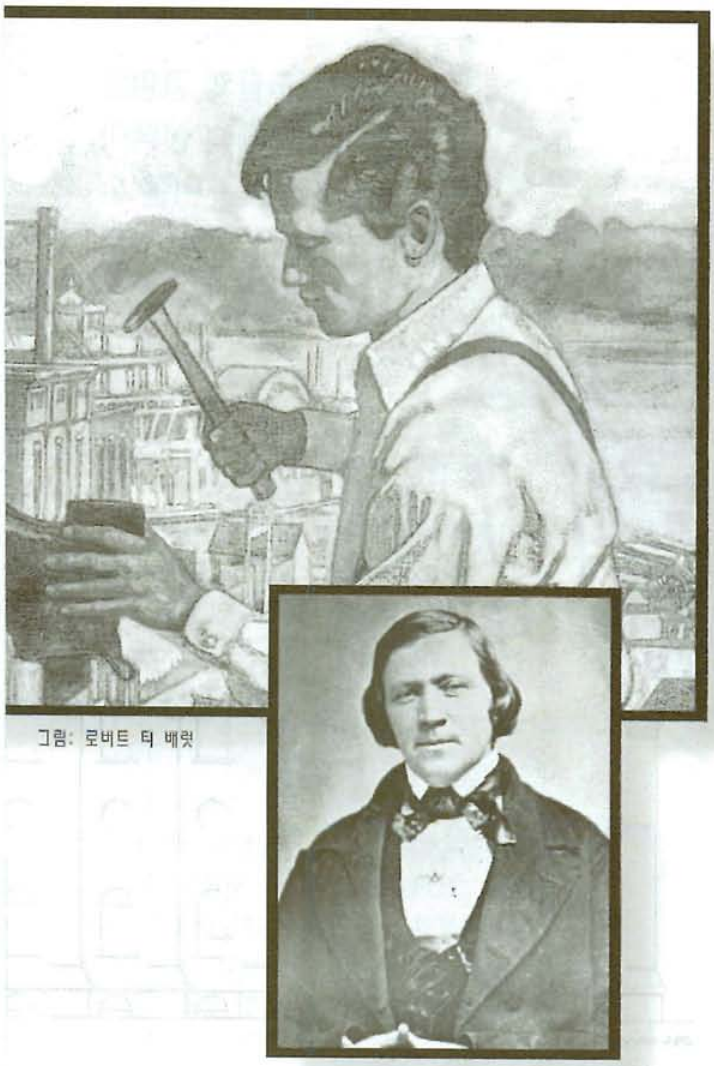


그림: 로버트 터 배럿

나이에 비해 몸집이 컸던 헨리는 나부 군대에 입대했다. 그는 적의에 찬 이웃들이 나부와 그 주변에서 몰몬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던 무렵에 "블랙 대위가 지휘하는 대대에 배속되었다." 장교들은 이 십대 소년에게 "그나마 총이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주었고, 그는 "때때로 밤새도록 정찰했는데, 폭도들이 언제라도 준동할 수 있는 시간에도 그는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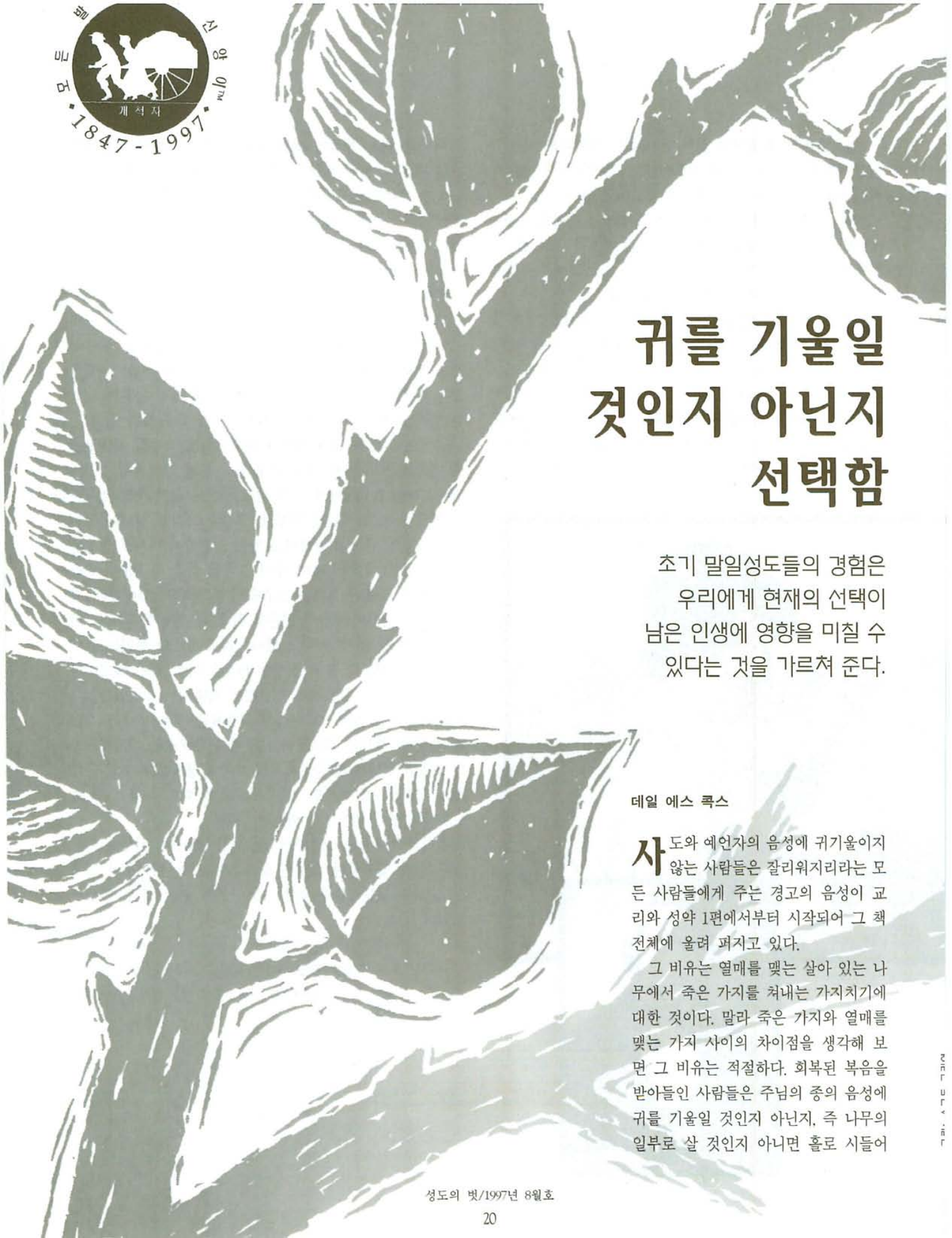
헨리가 열일곱 살이 되던 1846년 초에, 성도들은 나부를 떠나야만 했다. 조나단 시 라이트는 아이오와를 건너는 마차 여행을 위해 헨리를 잡일꾼과 한 조의 황소들이 끄는 마차를 모는 마부로 고용했다. 헨리는 말을 결코 달리게 하지 말라는 라이트 형제의 충고를 제외하고는 그 일을 좋아 했다.

라이트 가족과 함께 헨리가 아이오와의 카운실 블러프스에 야영하고 있을 때, 미국 군대의 한 신병 징병관이 그곳에 왔다. "나는 동료들에게 그가 결코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헨리가 말했다. 그런데 브리감 영 대관장은 덤불을 덮어 만든 초막에서 모임을 소집하여 멕시코 전쟁을 위해서 몰몬 대대에 500여 명이 입대할 것을 촉구했다. 헨리는 부름에 응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아 군대에 입대했다. 라이트 씨는 자신이 고용한 일손을 잃게 된 것에 분개하여 "화를 내며 내가 갈 수 없다고 했다." 라고 했지만 헨리는 떠나갔다. 그는 정부의 요구 조건인 18살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신장이 충분히 자란 뒤라 별탈없이 입대 할 수 있었다."

열여덟 살이 되던 그 다음해 여름에는, 몰몬 대대가 그들의 행군을 마쳤던 캘리포니아를 떠나 1847년에 개척자들이 막 도착한 헨리는 대 솔트레이크 계곡에 당도했다. 자신의 가족과 재회하기를 바라던 그는 브리감 영 대대와 함께 그 해 느지막히 윈터 쿼터스로 되돌아 갔다.

헨리와 가족들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850년에 서부로 이주했다. 그는 결혼하여 유니온 포트, 필리모어, 페어모어 등에서 살았다. 그는 그 후 농부, 교사, 구두 수선공으로 일생을 보냈다. □

본 기사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말일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헨리 위크스 샌더슨의 자서전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닌지 선택함

초기 말일성도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현재의 선택이 남은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데일 에스 콕스

사도와 예언자의 음성에 귀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잘리워지리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음성이 교리와 성약 1편에서부터 시작되어 그 책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 비유는 열매를 맺는 살아 있는 나무에서 죽은 가지를 쳐내는 가지치기에 대한 것이다. 말라 죽은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사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그 비유는 적절하다.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의 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닌지, 즉 나무의 일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홀로 시들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충실한 회원으로서 브리검 영은 정원회 회장인 토마스 비 마쉬에게 예언자 요셉의 말씀에 귀기울이도록 조언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마쉬는 자신의 결심을 따르기로 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왕국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었다.

그림: 에이 로버트 맥케이

서 내던져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교리와 성약 전체에 이 경고가 나오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의 삶에서 흥미로운 대조가 전개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 나아감으로써 열매를 맺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잘리워졌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교리와 성약에서 나의 4대조 할아버지인 라이만 셔만의 이름을 발견하였을 때 그 책에 나오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35년에 라이만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가서 가르침을 구했다. 요셉 스미스는 그에 응하여 짤막하지만 봉사할 사람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이 되는 교리와 성약 108편을 받았다. 라이만은 후에 칠십인 회장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사도직에 부름받았다는 말씀을 듣기 전에 미주리에서의 박해 기간 동안에 사망했다.[1] 나의 가족과 교리와 성약의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나는 그 책에 나오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들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에 언급된 약 129명의 삶은 그들의 인간적인 관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언자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준 방법에서도 흥미롭다.

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여섯 편에는 최초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토마스 비 마쉬에게 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마쉬는 "교회의 병고치는 의사가 되라"(교리와 성약 31:10)는 말씀을 들었으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십이사도를 인도하는 중요한

책임을 부여 받았다. 그는 교회를 위해 많은 것을 참아냈지만 결국은 자신의 교만을 억제하지 못하고 당시의 불화와 분쟁 속에서 교회를 저버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원회에서 그의 후임이었던 브리감 영은 여러 차례 참을성이 없는 회장에게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이도록 조언했다. 한 번은 십이사도가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괴로워하던 마쉬 회장에게 브리감 영은 "만일 우리가 충실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방법을 알게 될 모든 권세를 가질 …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2] 라고 했다. 마쉬 회장은 자신이 요셉 스미스의 결정에 대해 불평했을 때 브리감 영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던 또 다른 경우에 대해 회상했다. "'토마스 형제님, 당신이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러면, 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다."[3]

토마스 마쉬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신권 체계의 각 부분이 적절한 자리에 놓이면서 일어난 조정과 시험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것을 중단하기로 선택하였으며 왕국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었다. 이와는 반대로 브리감 영은 결코 실족하지 않았으며 토마스 비 마쉬가 그렇게 되고 싶어했던 왕국의 위대한 건설자와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다.

왕국에서 잘리워진 고통과 손실은 토마스 마쉬가 배도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탄원했던 그 자신의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다. 제게 사명이 주어졌지만 저는 그것을 결코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늦은 것이 두렵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 없이도 잘 해나가실 수 있으셨으며, 제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인해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음을 봅니다. 오, 그러나 저는 무엇을 잃었습니까?"[4]

결국 토마스 비 마쉬는 회원 자격을 회복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기회는 회복하지 못했다.

교만으로 인해 참고 견디기보다 벗어나기를 선택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교리와 성약 52편에 언급된 시몬즈 라이더는 교회가 조직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교회에 가입하였다. 그는 이내 배도하였으며 마침내 한겨울에 폭도들이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을 집에서 억지로 끌어내어 잔인하게 폭행하고 타르칠을 하도록 이끌었다.[5] 그가 교회를 떠났던 이유는 교회 서류에 그의 이름 철자가 잘못 표기된 것 때문이었다. 그는 오식에 대해 영감받은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었다.[6]

교리와 성약 50편과 52편에 나오는 조셉 웨이크필드 역시 예언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비슷한 구실을 찾았다. 그는 요셉 스미스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나온 직후에 어린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은 예언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7] 그 역시 라이더처럼 잘리워졌으며 그의 이름도 사라져 갔다.

교리와 성약 124편에 언급된 알몬 바비트는 나부 시절에 스테이크 부장과 교회의 법률 고문으로 봉사했던 저명한 교회 지도자였다. 그러나 바비트 형제는 자신의 탁월성과 재능 때문에 굳건하게 견디지 못했다. 그는 여러 번 교회를 들락날락하였다.[8]

또 어떤 사람들은 교리와 성약 55편에 나오는 윌리암 더블류 펠프스처럼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왕국에 충실하게 이바지했다. 펠프스 형제가 예언자의 생명을 거의 빼앗을 뻔했던 미주리 사태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와 요셉 스미스와의 감동적인 화해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이며, 길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상기시켜 주는 사건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윌리암은 예언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성도들과 다시 합류하기를 원했다. 요셉은 흔쾌히 관대하게 그 두 가지를 다 받아 주었다.[9]

그러나 어쨌든 비틀거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만큼 굳건하게 견뎠던 조용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다. 비록 교리와 성약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언자 곁에 그토록 충실하게 서있었던 가족의 어머니 폴리 나이트는 미주리에서 사망하여 교회 역사에 이름이 오른 첫 말일성도가 되었다. 그녀는 미주리에 정착하기 위해 여행을 하던 중 심하게 병이 들어서 아들인 뉴웰이 그녀의 관을 만들 나무판을 사기 위해 배에서 급파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병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계속하도록 주장하였으며 집합지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조셉 나이트는 미주리에서 아내를 땅에 묻은 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내는 우리가 선택한 숲의 한 지점에 묻

했다. 나는 며칠 후 아내가 묻힌 곳에 나갔다가 돼지들이 아내가 묻힌 곳을 코로 파헤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분이 몹시 나빴지만 다음날 도끼를 들고 가서 무덤 주위에 울타리를 쳤다. 그것이 내가 그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었다."[10] 그녀의 충실한 희생은 주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는 자기의 모든 수고를 떠나 안식을 얻을 것임이니, 저희 업적이 저희를 뒤따르리라. 또 저들은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59:2)

스티븐 마크햄은 카테지 감옥에 있던 요셉 스미스에게 가려고 했으나 살인자들과 공모한 간수들로 말미암아 돌아서야 했다. 그들이 총검으로 얼마나 심하게 찔러댔던지 그의 부츠는 피로 가득 찼다.

다른 사람들 역시 조용한 충실성으로 인해 구별되었다. 요셉 스미스를 통해 교리와 성약 99편의 계시를 받은 존 머독은 "나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라 … 수년 후에 만일 네가 내게 원하면 너도 그 좋은 땅으로 올라가 네 상속의 땅을 소유함도 좋으니라."(교리와 성약 99:1, 7)는 말씀을 들었다. 그는 교회를 위해 여섯 번이나 선교 사업을 수행했다. 그가 성도들의 초기 집합지인 오하이오 주의 커틀랜드와 미주리 주, 그리고 일리노이 주에다 각각 아내를 한 명씩 묻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희생의 깊이를 알 수 있다.[11] 그러한 것이 바로 그와 그들의 신앙과 인내심의 유산이었다.

교리와 성약 여덟 편에서 언급된 예언자의 동생 사무엘은 요셉과 하이람이 순교당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카테지의 세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그의 죽음은 폭도들이 추격해 오기 전에 형들을 구하려고 무리하게

급히 카테지로 말을 타고 감으로써 발생한 합병증이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너무 늦게 도착해서 형들을 구하지 못한 사무엘은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나부로 돌아왔으며 얼마 후에 그들의 뒤를 따랐다.[12]

교리와 성약의 역사에는 이름이 불리우지 않은 또 다른 영웅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에게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디믹 헌팅턴은 충실하게 또한 종종 고생스럽게 육체적인 일로 예언자에게 봉사함으로써 예언자로부터 깊은 감사를 받았다.[13] 디믹의 아버지 윌리암은 예언자와 잠자리를 바꿔 잠으로써,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에 화가 난 폭도들에게 잔인하게 폭행당하기도 했다.[14]

예언자의 인생 후반기에서 위험한 거의 모든 경우에 등장하는 스티븐 마크햄에 대한 이야기는 충실함에 대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스티븐 마크햄은 요셉이 미주리의 감옥에 갇혔을 때 스미스 가족을 안전하게 일리노이로 데려갔다.[15] 요셉이 두 명의 미주리 경관들에게 불법적으로 억류당해서 학대 받고 있을 때 그들을 저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인도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서 예언자가 미주리로 끌려가는 것을 막는 데 조력했던 사람도 바로 스티븐 마크햄이었다.[16] 카테지에서 옷을 바꿔 입고 예언자가 탈출하도록 제의한 사람도 마크햄 형제였다.[17] 예언자가 순교당하던 날 마크햄 형제는 윌라드 리차즈 장로를 위한 약을 갖고 감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때 살해자들과 공모한 간수들이 그에게 싸움을 걸어와 공격하였으며 마침내 무력으로 몰아내서 예언자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다. 말 등 위에서 총검으로 얼마나 많이 찔렸던지 그의 부츠는 피로 가득 찼다.[18] 요셉 스미스의 마지막 일지에는 스티븐 마크햄에게 "만일 앞으로 나와 하이람이 다시 끌려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학살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19]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크햄 형제가 기울인 용감한 노력은 그의 사랑의 표시였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온 씨앗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그의 예언자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진다. 그 비유에 나온 토양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한 것이 교회사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삶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다. 우리 역시 들을지 듣지 않을지를 선택한다. 우리는 존 머독의 충실함을 따를 수도 있고 알몬 바비트의 굳건하지 못한 태도를 따를 수도 있다. 또한 브리감 영의 참을성 있는 겸손함을 따를 수도 있고 토마스 마쉬의 교만함을 따를 수도 있다. 시몬즈 라이더와 조셉 웨이크필드가 그랬던 것처럼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떨치고 사무엘 스미스와 폴리 나이트 그리고 헌팅턴 부자와 스티븐 마크햄이 그랬던 것처럼 충실하게 봉사할 수도 있다. 만일 길을 벗어났다면 윌리암 펠프스가 그랬던 것처럼 회개할 수도 있다.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도 과거의 충실한 사람들처럼 계속 열매를 맺을 것이다. 듣지 않는다면 잘리워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왕국의 열매맺는 나무의 일부가 될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하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

주

1. 린든 더블류 쿡,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들*(1985년), 217쪽
2. 로날드 케이 이스플린, *오 너희 백성들아, 귀기울여 들을지어다*에서 "1835~1838년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첫 회장이었던 토마스 비 마쉬", (1984년), 173쪽
3. 같은 책, 184쪽
4. 같은 책, 185쪽
5. 루시 맥 스미스, *어머니가 쓴 요셉 스미스의 생애*(1958년), 219~220쪽
6. 쿡, 81쪽
7. 같은 책, 69쪽
8. 같은 책, 252쪽
9. *교회 정사*, 4:162~164쪽
10. 쿡, 93~94쪽
11. 같은 책, 80쪽
12. 스미스, 340~341쪽
13. 트루먼 지 매드슨, *예언자 요셉 스미스*(1989년), 40쪽
14. 같은 책
15. 도나 힐, *첫번째 몰몬, 요셉 스미스*(1977년), 251쪽
16. 같은 책, 325~328쪽
17. 매드슨, 121쪽
18. 테드 기븐즈, *나는 카테지 학살을 목격했다*(1988년), 41쪽
19. 존 헨리 에반스, *미국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1989년), 198쪽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또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침을 받는 신앙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교리와 성약 46: 19~21)

하루는 예수님이 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갑자기 돌아보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며 물으시었다. 제자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무리 가운데의 누군가와 부딪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손을 댄 것은 사실상 신앙의 행동이었다.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고침을 받으리라 믿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누가복음 8:43~48; 마태복음 9:20~22 참조)

그와 똑같은 병고침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늘날 육체나 정신이나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

주님을 신뢰함

야고보는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도록 이르시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라고 하셨다.(야고보서 5:14~15)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의식을 행하는 신권 소유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러한 병고침을 받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신앙이 있어 나을 줄로 믿고 또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자는 병 고침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42:48)고 약속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는 그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들어 있어야 한다. 암을 앓고 있던 한 젊은 자매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에게 이러한 신앙을 나타내 보였다. "밸라드 장로님, 죽는 것이 두렵진 않지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가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구세주께서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셨으며 저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무엇을 원한다 해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벨라드 장로는 그녀를 축복했으나 그녀의 요청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가족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주님의 평화스런 영을 지닌 채" 숨졌다.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81쪽)

역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충실한 성도들은 때때로 사는 동안 역경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면서 가장 위대한 병고침의 기적은 어쩌면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일례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고결하고 참을성 있게 고통에 대처했다. 사도로 봉사하던 기간 동안 그는 암 때문에 성대의 대부분을 잘라 내어야 했지만 그 후로도 여러 해 동안 여전히 온 세계에 간증의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주님의 대변자요, 예언자로서 봉사했다.

밸라드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앙을 증진시켜 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그리스도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시야는 더 넓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비전을 갖게 되며, 이러한 것을 지님으로써 우리는 모든 자녀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닥치는 역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고 계시는 현세에서의 위안과 영원한 평화와 기쁨과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엔사인*, 1996년 12월호, 61쪽)

- *우리는 어떻게 역경을 통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 *가족과 이웃과 친구의 병고침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우리로 돌아옴

저자가 익명을 요구함
그림: 덕 패켈

어느 날 와드 서기가 전화를 걸어서 "화요일 밤에 감독님을 만나러 오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이웃에 사는 회원에게서 새로운 감독님이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러 해 전부터 교회에 발길을 끊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은 내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였다. 나는 새로운 감독님이 내게 어떤 부름을 주고 싶어한다는 것을 짐작하였으며, 내가 회원으로서 나의 상태를 설명하고 나면 우리 둘 다 얼마나 어색할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독님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껴져서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마침내 나는 나의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도록 도와주었던 그 분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게 되었다. 감독님은 훌륭한 방법으로 내가 진정으로 환영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셨다. 우리는 잠시 동안 사교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감독님은 내가 교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으셨다. 나는 조금도 어려운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해 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며, 계속 범법한다면 파문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나는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미 파문당했다고 생각하였다.

감독님은 내게 계명과 관련하여 지금의 내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물으셨다. 그때 나는 자신이 정말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렇게 하는 동안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말을 마치고 나자 감독님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다. "지금 교회로 돌아오시겠습니까?"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감독님은 스테이크 부장님에게 교회 선도 평의회 모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 본 후 내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감독님의 사무

실을 떠나면서 느낀 희망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몇 달 후 나는 "또한 너희에게 소망이 없으면 응당 절망할 것이라.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도다."(모로나이서 10:22)라는 몰몬경의 성구를 통해 그날 밤 내 인생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해하였다. 나는 회개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딸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언젠가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서 감독님의 사무실을 떠났던 것이다.

나는 감독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비회원인 남편에게 다시 교회에 나갈거라고 말했다. 그는 좋게 생각한다고 했다. 교회로 돌아간다는 나의 발표는 당시 열한 살이던 우리 큰딸을 감격시켰다. 그 애는 항상 혼자 교회에 가거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갔었다.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감독님과 얘기를 나눈 것과 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알려 드렸을 때 나는 그 분들이 우시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 분들이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회로 돌아옴

교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내가 가장 걱정한 것 중 하나는 와드 회원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이었다.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간 첫 일요일은 스테이크 대회였다. 나는 약간 두려웠으며, 네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 준비시키면서 조금 지쳤다.

우리에게서 좀 떨어진 곳에 몇몇 이웃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나는 낯익은 얼굴들을 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 개회 찬송가는 "내 구주 살아 계시다"(*찬송가*, 68장)였다. 나는 그 가사를 따라 부르며 울기 시작했고 남은 시간 내내 영감 받은 말씀과 찬송가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모임이 끝나갈 때쯤, 한 자매가 내게 쪽지를 보냈다. 그것을 읽으려 할 때 두 살배기 우리 애가 내 드레스의 단추를 풀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재빨리 단추를 채우고 *맙소사, 누가 알아차리진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쪽지에는 그 자매가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들이 틀림없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 그 쪽지는 내가 올바른 장소에 있으며, 사람들이 나와 아이들을 받아들인다는 확신을 다시 갖게 해주었다. 나는 그 자매가 누구인지 결코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해준 친절한 작은 행위를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다음 일요일은 금식 주일이었다. 나는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가기를 희망했지만 우리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미소와 친절한 말로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교회에 온 것을 환영해 주었으

열한 살짜리 우리 딸이 일어나서 간증을 전하며 엄마가 맥주를 끊고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했다. 그렇게 조용히 들어오려고 노력했건만!

며 새로운 회원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내가 성찬을 취하지 않고 조용히 성찬기를 지나 보냈을 때 세 살난 우리 애가 큰 소리로 "엄마, 배고프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다. 그 때 열한 살짜리 우리 딸이 일어나서 간증을 전하며 엄마가 맥주를 끊고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했다. 그렇게 조용히 들어오려고 노력했건만!

나중에 감독님은 다시 나를 만나서 선도 평의회가 새로 열릴거라고 알려 주셨다. 나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조금 두려워지는 것을 느꼈으나 겪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감독님을 처음 만난 후로 나는 한번도 느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기쁨을 계속 느껴 왔다. 나의 이해력이 변하기 시작했으며 나는 자신이 인생과 가족과 친구들을 더욱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도대체 어떻게 맥주 없이 남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해 하면서 힘들게 며칠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내 속에 희망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감독단의 일원이 내 아들 친구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 신경이 예민해졌으며, 그가 과거의 내 모든 죄에 대해 들은 후 자기 아들이 다시 우리 집에 놀러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만일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의 바람을 존중해 주리라고 결심했다.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의 온전한 회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선도 평의회 모임이 열리기 얼마 전에 나는 처음으로 연차 대회 말씀을 들었다. 한번은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이 "죄와 상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께, 우리는 다시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길은 그리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이 길이야말로 완전한 용서로 인도되는 길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쪽)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분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돌아가겠다, 약속한다* 라고 자신에게 약속했다. 헌터 대관장님은 내가 귀기울인 첫 예언자였기 때문에 나는 그 분께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다.

사랑의 평의회

마침내 나를 위한 선도 평의회 모임이 열리는 밤이 왔다. 감독단과 함께 무릎꿇고 기도하면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형제들의 사랑과 또한 영의 영향력을 강하게 느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오래 알지는 못했지만 나를 염려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친구의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머뭇거릴 때 나는 그가 자기 아들이 내 아들과 더 이상 놀 수 없다고 말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말 대신 "제가 자매님의 아들과 또 자매님의 가족과 함께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는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들을 두신 것을 보면 자매님은 훌륭한 어머니임에 틀림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모임이 끝날 때 감독님은 "자매님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합당한 회원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나는 집에 가서 웃고 울며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그분의 사랑과 친절에 대해, 또 의로운 판사직을 수행한 훌륭한 형제들과 계속 나를 도와준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받았던 다른 모든 축복에 대해 감사드렸다.

한밤중에 남편과 나는 둘 다 잠이 깼으며 우리 집에 있는 악한 기운을 느꼈다. 내가 감독님의 사무실에서 성신을 느낀 것처럼 분명하게 이제는 사탄을 느꼈던 것이다. 침대에 누워서 나는 내가 교회로 돌아옴으로써 사탄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며 곧 그 기운이 물러가는 것을 느꼈다.

남편과 나는 다음날 저녁 내가 우리 집에서 48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시내에서 그를 차에 태울 때까지도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소?"라고 물었다.

남편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지난 밤에 내가 혼자 교회 모임에 갔다고 말했다. 이제 나는 그에게 감독님의 사무실에서 일어났던 일과 사랑과 위안의 느낌 그리고 내가 완전한 회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모두 말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우신 체계에 대해 간증했다. 또한 나는 남

편에게 사탄이 나의 행동으로 몹시 화가 나있으며 그것이 바로 어젯밤에 우리가 그의 영향력을 느꼈던 이유라고 말했다. 나는 남편에게 우리 집에 신권이 있기를 바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 보시리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말을 끝마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쳐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렇게 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차가 집 앞 길로 들어선 후에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하오."라고 했다.

회개의 열매들

내가 교회로 돌아온 후 나와 가족에게는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 망설여졌다. 나는 그가 재정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데 추가적인 다른 지출이 생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준비로서 나는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다.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계명과 십일조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입을 열었을 때 그런 말 대신 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는 데 복음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그의 아내임을 자랑스러워 하게 할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며 만일 그가 교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항상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좀처럼 울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그가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가 깊이 감동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내가 생활을 정리함으로써 더 이상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자신이 나를 충분히 도와주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남편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고 했다.

나는 자신의 행복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남편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

마침내 십일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남편은 내가 그만큼의 지출을 없앨 방법을 강구해 낸다면 십일조를 낼 수 있다고 동의했다.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해낼지 알지 못했지만 1995년 1월부터 십일조를 내겠다고 결심했다. 1월 첫날에 교회에 갔다와서 네 살난 우리 애가 옷벗는 것을 도와주다가 나는 그 애 몸에서 여러 개의 수두 자국을 발견했다.

딸애가 탁아소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밤 교대 근무자에게 내가 낮 동안 집에서 애를 볼 수 있도록 교대 시간을 서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 후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십일조로 필요한 액수가 바로 탁아소에 지불해야 했던 액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주 후에는 예상한 대로 두 살난 아이가 수두에 걸렸지만 나는 다시 다른 사람과 교대 시간을 바꿀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십

나는 자신의 행복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남편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일조를 내는 길을 찾을 수 있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깨달았으며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십일조를 낼 수 있었다.

활동적인 회원이 되고 나서 나는 교회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편안하게 느끼지는 못하였다. 나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간증을 갖고 있는지 판단해야 했다. 아이들을 위해 돌아온 것은 아닐까?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에 관해 좀 더 낫게 느끼고 싶었기 때문은 아닐까?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나는 자신의 간증이 참된지 궁금하게 여기며 성찬식에서 간증을 전하는 회원들의 말씀에 골똘히 귀를 기울였다. 어느 일요일에 우리 기초 복음반 교사는 우리에게 사람이 간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교회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내게 너무나 강하게 와 닿았으므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자신이 그것을 잘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관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나는 선도 평의회와 기도와 지혜의 말씀과 십일조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에 대해 내가 간증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그날 나는 자신이 간증을 가졌음을 알고 교회에서 집으로 갔다.

돌아옴에 대한 회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무엇으로 인해 돌아왔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훌륭한 감독님이 내가 준비되었을 때 불러 주셨다고 대답하곤 했지만 지금은 그 과정이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있다.

나의 부모님은 항상 의로움과 정직과 성실과 사랑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나는 평생 동안 올바른 원리를 배워 왔다. 더욱이 나는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모범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곁에서 살았으며 그들과 함께 일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었다.

열두 자녀를 가진 한 이웃은 우리 애들 중 위로 두 아이를 식사와 가정의 밤과 교회 활동에 셀 수 없이 여러 번 초대해 주었다. 나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가 음악 소리를 좀 낮춰 주고 파티를 더 일찍 끝내 주기를 바랬다고 확신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우정을 나눠 주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나는 감독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친절한 이웃들이 많은 선행을 베풀어 주었다!

나는 구입할 때 실내의 천정 전구가 없었던 낡은 차를 몰고 다녔다. 낮에는 불이 없어도 상관없었지만 밤에는 캄캄한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간 무서웠다. 종이에 쓰인 지시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로등 아래로 몰고 가야 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찾기 어려웠다. 실내등이 없는 것이 불편했지만 나는 그것에 익숙해졌다.

한 친구가 내 차를 빌려 쓰고 돌려주었을 때, 나는 그녀가 새 전구를 끼워 준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내게 전구가 일 달러도 안되고 끼우는 데도 일 분이 안 걸린다고 말했다. 불이 들어오니까 아주 좋았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실내등 없이 살았지?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마침내 차의 실내 등을 단 것은 결국 영적인 빛을 가진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인생이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빛이 없었으므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어두운 차 안으로 들어가는 두려움은 내게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기시켜 주었다.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가로등을 찾아가는 것은 신뢰하는 친구들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나는 항상 빌려 온 빛에 의존할 수는 없었다. 어둠 속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적인 빛이 없다면 쉽게 일어나는, 복음의 원리를 잊어버리는 일과 같았다. 나는 실내등이 없어도 여전히 차를 몰 수 있고, 영적인 빛이 없어도 인생을 잘 보내겠지만, 평화와 인도와 이해력의 축복은 놓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빛을 다시 갖는 데 필요한 일은 바로 회개이다. 내가 감독님을 만나고 다시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할 때 그 과정이 시작되었다.

나는 최근에 성전 의식을 받고 영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지금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그만큼 많이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남편도 때때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그가 와드의 일원이라고 느끼도록 도와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또 나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대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영원히 감사를 느낀다. □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우로 프로페르지
그림: 그레그 도클슨

어느 추운 겨울 밤 12시 15분이었다. 나는 경찰서를 나와 이탈리아 *경찰차*인 푸른 알파 로메오에 급히 올라 탔다. 나는 군대나 정부 기관에서 일 년 동안 의무적으로 봉사하도록는 모든 이탈리아 청년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경찰로서 배치되어 있었다. 그날의 나의 임무는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베니스 바로 북동쪽에 있는 제솔로와 까발리노 두 시를 순찰하는 것이었다.

나는 동반자의 강한 성질과 나의 인내심 부족으로 서로 늘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터였으나 우리의 관계는 지난 주 동안 상당히 호전되었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들리는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나의 주의를 끌었다. *"아반티 달라 트렌투노"*라고 나는 대답했다. 베니스 북쪽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방금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서에서 우리에게 알리는 소식이었다. 위험성이 있을거라는 예감이 들면서 나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무전기를 통해 그 경관은 이 강도 사건에서 경찰관 한 명이 총에 맞았다고 말했다. 네 명의 강도는 소련제 자동 무기인 칼라슈니코브스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흰색 란시아를 타고 제솔로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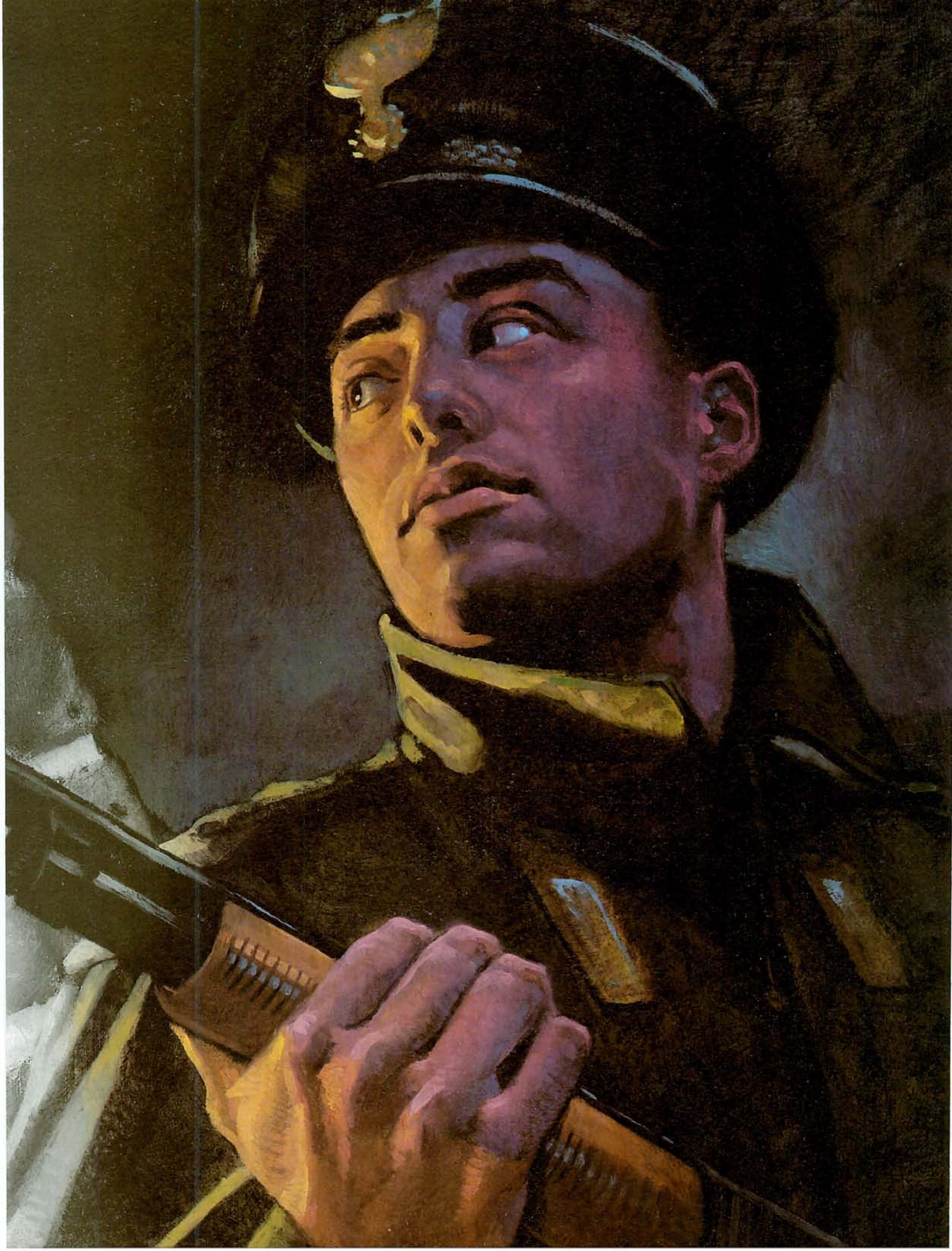
"리세부토", 나는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어 나의 무기를 잡으면서 암호로 말을 끝냈다. 나는 시선을 나의 동반자에게 돌리며 물었다. "강도들과 마주치면 어떻게 하지?" 그의 대답은 냉혹하고 단도 직입적이었다. "쏴 버려."

나의 동반자는 재빨리 자동차의 기어를 바꾸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곧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우며 만약 우리가 네 명의 무장 강도와 마주친다면 살아 남을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다. 나의 동반자는 침묵을 지키며 마음의 동요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사명과 나의 조국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용의가 있는가?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한 선서가 나의 마음에 떠오른 이 질문에 신속히 대답해 주었다. 나의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탈리아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할 것을 나는 약속했었다.

우리가 제솔로의 큰 길로 들어섰을 때, 나는 오른손으로 총자루를 꽉 쥐고 있었다. 다시 그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가족, 나의 인생, 복음에 대한 나의 간증 등에 대하여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약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고 거의 동시에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음을 느꼈다. 나에게는 크게 후회할 일이 없으며 내가 불친절하게 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나에게 커다란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조급하던 마음이 서서히 정상을 되찾으면서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우리는 그 날 밤에 강도들을 만나지 않았다. 한 번도 총을 쏘아 본 일이 없이, 몇 개월 후에 나는 일년 간의 나의 경찰 의무를 끝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겨울 밤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경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라도 나를 본향으로 부르실 수 있으며, 그래서 나는 회개의 평화와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



제때 한 바늘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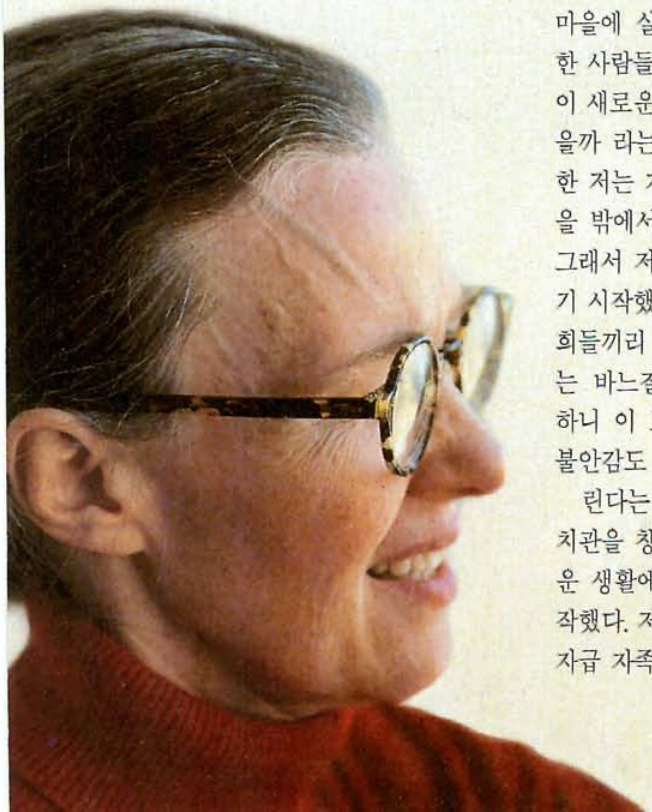
페트리아 켈리

린다 건더는 뉴욕 시의 센트럴 공원의 벤치에 앉아, 아이들에게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고 달리기를 하며 놀게 하고 그 동안 조각 이불을 만들 조각 천에 수를 놓는다. 거의 20년 동안 그녀는 자녀들을 데리고 공원에 와서 조그만 천 조각에 아름다운 추억과 훌륭한 가치관을 수놓아 오고 있다.

린다는 이렇게 말한다. "폴과 제가 처음 이곳으로 이사왔을 때, 우리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도시에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교회의 회원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란 조그만 마을과 그 마을에 살던 독립심과 자립 정신이 강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러한 가치관을 이 새로운 환경에 옮겨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자녀들이 뛰어 놀며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공원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있는 동안 저는 바느질하기에 바빴고, 또한 이렇게 하니 이 도시에서의 생활에 대한 저의 불안감도 없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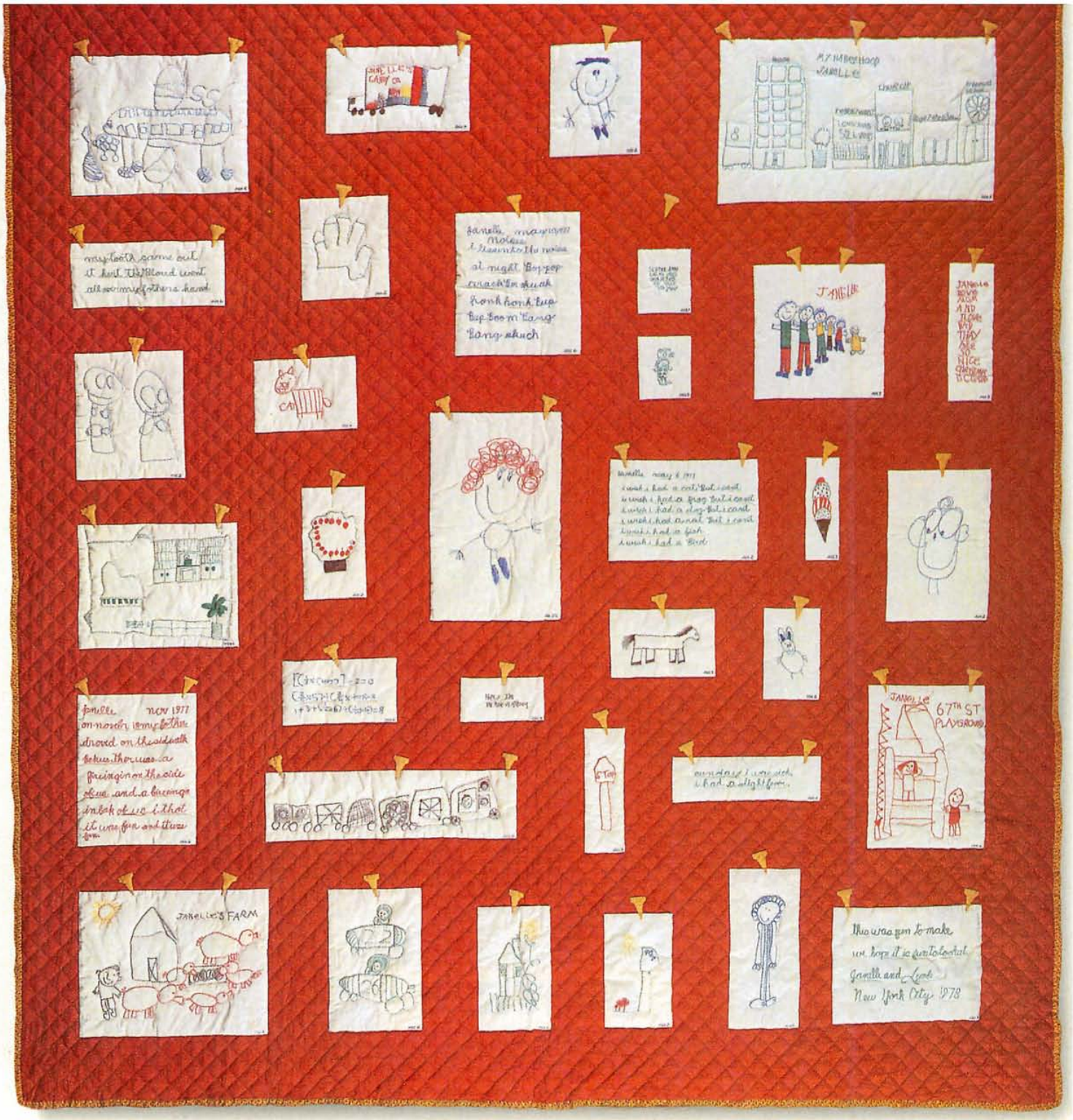
린다는 그녀가 선망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새로운 생활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저장 음식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자급 자족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이 도시에서 저장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병조림하였던 것들을 모두 생각해 내서 목록을 만들고 그것들을 상징하는 모양들을 조각 이불의 한 조각 한 조각에 수놓았다. 린다는 자신의 개척자 조상들에게 바치는 찬사와 자녀들이 즐길 가족 역사를 창조하면서 한 바늘 한 바늘 수놓아 갔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가족에게 독립심, 근면, 자립, 추수의 원리,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자신감을 등을 가르쳤다.

린다는 병조림 조각 이불을 완성하자마자 곧 가족 역사가 담긴 조각 이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자녀들 각각에 대한 추억이 담긴 조각 이불들이 뒤이어서 계속 만들어졌다. 그 전통은 린다의 큰 딸 제넬리가 일곱 살 때 시작되었다. 린다와 제넬리는 제넬리가 가장 잘 그린 어린 시절의 그림들, 특별한 날의 편지, 심지어는 제넬리가 푼 산수 문제까지 모아서 그것들을 하얀 천조각에 옮겨 놓았다. 그런 다음 린다는 부엌 식탁 위에 그 조각들을 놓고 붙여서 이불로 꾸몄다. 제넬리가 침례를 받을 때까지의 그녀의 어린 시절이 이불에 보존되었다. 뒤이어 다른 여섯 자녀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특한 여섯 개의 또 다른 이불이 각 자녀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린다와 그녀의 막내딸 제시가 지금 여덟 번째 이불을 만들 수놓은 조각들을 모아 붙이고 있다.



위 쪽: 건더 가족 나무 이불은 참으로 여러 세대들을 연결시켜 준다. 타원형 속의 폴과 린다는 1966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오른쪽 위)에서 결혼했다. 그들의 여덟 자녀의 이름이 나무의 줄기 둘레를 감싸고 있다. 도토리에는 린다와 폴의 동생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의 서명이 들어있다. 나무의 가지들은 건더 가족의 조상들을 나타낸다. 린다는 그들의 조상들의 사인을 이불 위에 수 놓았고 혹 사인을 구할수 없을 때는 그들의 이름을 수놓았다.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집들은 린다와 폴이 살았던 장소를 상징한다.

맞은편 쪽: "모두가 완전하지 못한 습작입니다." 라고 린다 건더는 그녀의 이불에 대하여 말한다.



위 쪽: 맏이인 제넬리는 자신의 조각 이불을 만들기 위하여 가족, 그들의 이웃, 그들의 가정, 그리고 근처에 있는 운동장의 그림을 그렸다. 제넬리는 또한 어머니에게 보낸 짤막한 편지와 자신이 여섯 살 때 푼 산수 문제도 넣었다.

일곱 살인 막내딸 제시가 어머니와 함께 조각 이불 작업을 시작하면서 천에 그녀의 그림을 베끼고 있다.

린다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할 그림을 그리도록 격려했다. 그들은 가정의 밤, 자화상, 가족들의 얼굴, 좋아하는 교실, 운동장,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그려 넣었다. 그 이불들은 생일이나 명절과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 전시되고 있다.

린다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글을 쓰고 싶었지만, 그런 일을 하려면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고, 남편과 여덟 자녀와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제가 그런 생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조각 이불을 만드는 일은 공원에서도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거침없이 실험하면서 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 만큼 잘 되지 않았지만 저는 천을 좋아하고 그 천을 가지고 일하기를 좋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린다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들의 뉴욕 아파트에서 조각 이불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만든 작품들을 조립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천과 가족과 도시에 둘러싸여 있는 린다는 "이것이 제가 제 자신의 역사와 저의 가족의 역사를 기록한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아래, 왼쪽: 일곱 번째 자녀인 어린 과학자 자스터스는 자신의 조각 이불을 위하여 우주선, 용, 주변에 상어가 우글거리는 수로가 있는 성곽 등의 그림들과 자화상을 선택했다. *아래, 가운데:* 여섯 번째 자녀인 잰슨은 그의 흑백 조각 이불에 경전 이야기와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넣었으며 사육제와 해적선도 넣었다. *아래, 오른쪽:* 조단의 퀼트, 린다가 그녀의 둘째 자녀를 위하여 창살 무늬 천으로 만들어 꾸민 조단의 퀼트에는 아마도 매주 앞줄에 앉아 있는 매우 순종적인 소년인 조단을 반영하는 맨하탄 예배당 단상의 상세한 그림이 들어 있다.

오른쪽: 어린이들이 그들의 생일이 있는 주 동안에 사용하게 되는 이 조각 이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두 건더 가족에게 중요한 이야기이다. 닭은 어린 시절 닭을 먹이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야 했던 할머니의 어린 시절의 일을 상징하는 증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 준다. 조각 이불에는 또한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인 요나와 고래 이야기, 풀과 린다가 결혼한 솔트레이크 성전, 독일의 풀의 선교 임지로부터 온 봉투 등이 담겨 있다.

셋째인 제니사는 그녀의 누비 이불에 그녀가 좋아하는 푸른 드레스를 그렸다. 그녀가 만든 작품이 그녀의 등 뒤 벽에 전시되어 있다. 가족이 함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갔던 여행을 반영하는 작품

아래 왼쪽: 다섯째인 줄리아가 그녀의 조각 이불을 만들고 있다.
아래 오른쪽 : 네째인 질렌이 그녀 자신의 작품으로 온통 뒤덮인 침대에서 자고 있다.

Gunther
Am Hirschsprung 33
Barby, Germany
LYNDA 1972

저는 기억합니다

리차드 엠 롬니

여러분은 그 지방의 모든 면허판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군인의 상의와 대리석 상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퀘벡 지방의 모토입니다. *쥬 므 수비엥*, "저는 기억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억할 것이 많은 곳입니다. 퀘벡 지방은 프랑스와 영국이 북아메리카의 지배권을 놓고 한 때 전투를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광활한 황야와 유목 아메리카 원주민의 안식처인데, 풍부한 자원의 현명한 사용이 아직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곳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오래된 정착지의 본거지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와 자갈길이었던 곳이 지금은 상업 지역과 초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기에 살았던 젊은 말일성도들이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단순히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그들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온전히 생활화하기 위하여 분명히 깨달은 곳입니다.

점검표

예를 들면, 라 듀살르는 그녀가 따르는 점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스베리 가까이 퀘벡-온타리오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인 생 폴리까르프에서 온 15세 소녀는 "저는 매일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매일 삼십 분 동안 경전을 읽습니다. 적어도 삼 십 분의 세미나리에 참석합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를 작성하고 저의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습니다. 저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많은 확신을 줍니다. 잠자리에 들 때, 저는 그 날의 저의 모든 영적인 목표가 충족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잠자리에 들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라 듀살르는 "저는 오늘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선택한다" 라는 개인적인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모토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억

쉬꾸티미 출신인 15세의 마르끄 앙드르 쎄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충실하게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 목표를 간직하십시오. 요셉 스미스가 한 때 실의에 빠졌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만일 그가 끝까지 충실하게 되려면 그가 약속 받을 것을 기억하도록 상기시켰습니다.(교리와 성약 6:13 참조) 해의 왕국과 승영을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투쟁에서 승리할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끄는 알아야 합니다. 사 년 동안 그는 교회를 떠났었지만 약 이 년 전에 그는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계속 자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고 제가 교회에서 느꼈던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속삭이는 영을 느꼈습니다. '가라!'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쉬웠습니다.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저는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고 이 교회가 구세주께서 조직하시고 싶어하시는 방법으로 조직된 참된 교회라는 간증을 참으로 얻었습니다."

모범

퀘벡 시 출신인 17세의 쥴리아 아와시시는 마르끄의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침례식에서 맺은 성약

40쪽: 알렉산드라 질베르와 베츠라 라삐에르는 *쥬 므 수비엥*—저는 기억합니다—를 생활 방식으로 삼은 많은 퀘벡 청소년을 대표한다.
아래 : 아버지 이방과 남동생 장 프랑수아와 함께 있는 라 듀살르

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약속은 우리를 교회의 회원으로서 강하게 합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저를 매우 많이 도와주었고 복음이 기쁨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의 어머니와 제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 기뻤습니다."

쥴리아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퀘벡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오베뒤앙이라는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돌아갔을 때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일성도가 된 것에 대하여 많은 뜬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가 정답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대단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아래: 마델레인과 올리비아 몽미니가 그들의 세미나리 교사인 그들의 어머니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다음 페이지: 자룽 라삐에르와 로베르 엠마누엘 뒤쉐즈

완전한 평화

역시 퀘벡 시 출신인 14세의 베츠라 라삐에르는 자기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하여 토론토 온타리오 성전에 처음 갔던 때를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아주 많은 젊은 회원들과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제 눈에 감사의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여러 해 동안 꿈꿔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꿈은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문 안으로 걸어들어 갔을 때, 저는 바로 완전한 평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점점 커지는 영적인 힘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래로 그 느낌이 저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유혹을 느낄 때, 성전에서 받은 느낌을 기억합니다. 저는 항상 그 평화를 느끼기를 원하고 성전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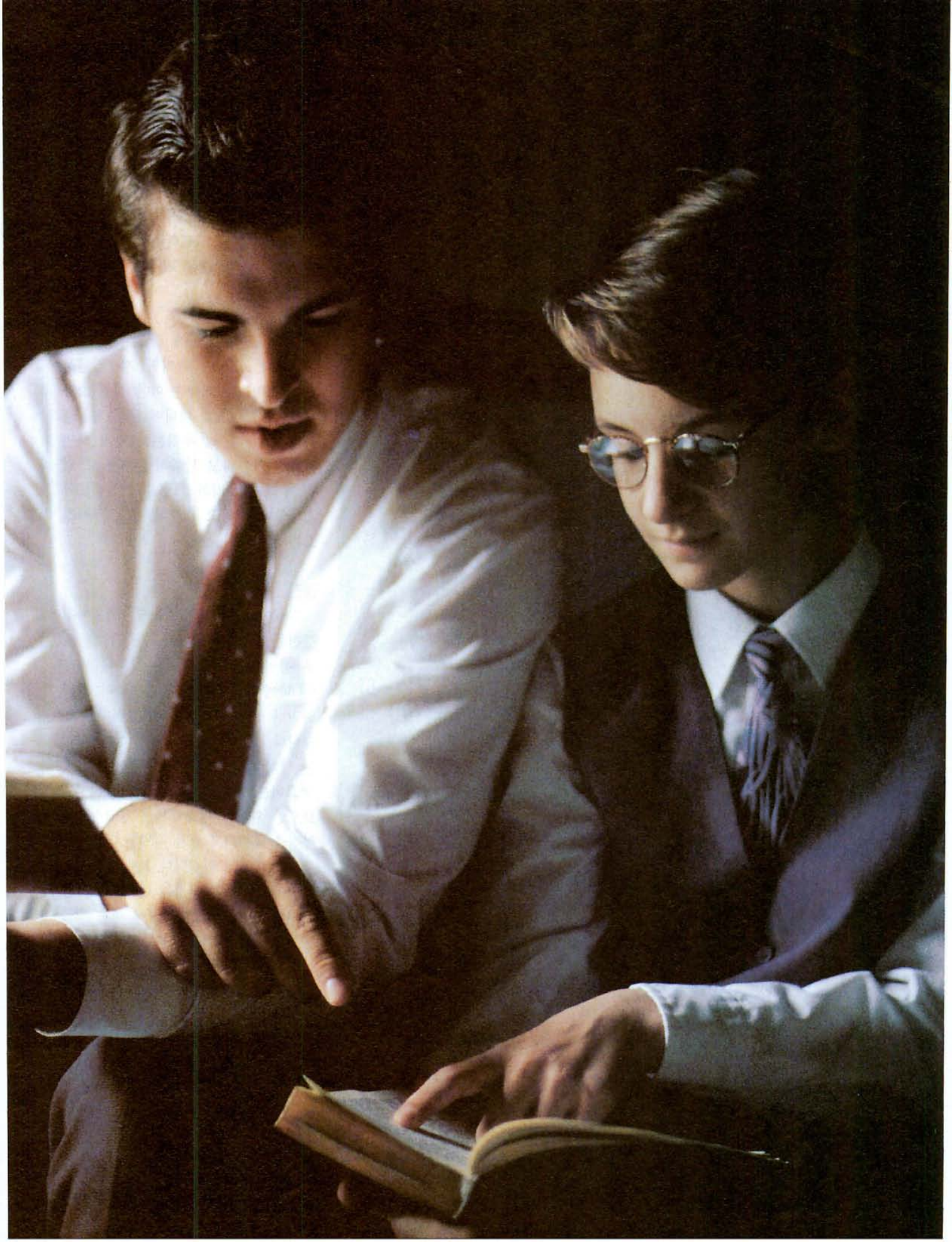
알레산드라 질베르는 성전 헌납식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을 만났을 때 비슷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앨마 시 출신의 14세인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분은 그 당시에는 교회의 대관장이 아니셨지만 지금은 대관장이십니다. 그 분은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시다가 잠시 멈추어 저와 악수를 하셨고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분은 매우 호감이 가는 분이셨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영어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분에 대하여 굉장히 훌륭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분을 만났던 것을 저는 항상 기억할 것이고 살아 계신 예언자가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결심

13세인 로베르 엠마누엘 뒤쉐즈는 라끄 생 장에 있는 앨마 시로부터 약 45분 거리인 생 모니끄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지부에 나가고 있지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때때로 저의 친구들이 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상한 말을 하지만 그들은 제가 일요일에는 교회에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는 또한 그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앨마 지부에는 단 두 명의 아론 신권 소유자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저는 우리 지부에는 교회에서 자라 지부를 발전시킬 많은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제 자신에게 상기시킵니다. 더 어린 아이들은 그 길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모범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세인트 로렌스 강 어귀 가까이에 있는 그 지방의 동부에 있는 마을인 리무스끼에도 아론 신권 형제가 이와 비슷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의 가정을 가가 호호 방문하며 금식 헌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가정은 자동차로 다녀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지부 회원의 약 50퍼센트가 이 지역의



올리비아와 마델레인 몽미니는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고 후원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는다.

다른 조그만 마을들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부장님은 요셉 스미스 시대에는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가가 호호 다니며 금식 헌물을 수집하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않되겠는가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라고 16세의 휴고 르베스끄는 말합니다.

경전

"저는 저의 가족과 함께 매일 아침 경전을 읽습니다. 그러고는 그 날 하루 동안 경전에서 읽은 것이나 가족이 함께 부른 찬송가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하루 종일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라고 17세의 올리비아 몽미니는 말합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몬트리얼의 르모인 와드의 청소년들은 정규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그들 각자는 좋아하는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세의 아리안 까롱이 좋아하는 구절은 니파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 구절입니다.(니파이일서 6:5 참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경전을 읽었고 그 때 너무나 강한 영을 느껴서 저는 읽기를 멈추고 그 구절을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경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간증의 시작이었습니다."

15세의 올리비에 카터가 좋아하는 구절은 앨마서 53장의 청년 용사들의 이

야기입니다. "힐라맨의 이천 용사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가르친 것들을 기억했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아주 충실하였습니다."

17세의 에스더 까롱이 좋아하는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저는 저를 강화시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 상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때 그녀는 그 구절을 되풀이하여 읽고 생각해 봅니다.

목표

퀘벡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훌륭한 모범이 되는 필요성,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등과 같은 그들이 매일 기억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항상 구세주를 기억하기 위해 매주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맺는 성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

일반 공개일

사진 촬영: 프레드릭 프로에리 상세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몬트리얼 퀘벡 마운트 로얄 스테이크의 몬트리얼 와드에서 바로 그렇게 했다. 그들의 새로운 예배당이 라 살르의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아서 와드 지도자들은 구경하도록 교회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와드의 청소년들이 주요 역할을 맡았다. 말일성도 십대들은 간식을 대접했고 주차 안내를 하고 문에서 손님을 맞았다.

"그것이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하여—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는지—를 더 많이 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15세의 멜리사 뽀아리에르는 말한다. 300명 이상의 비회원이 교회 건물을 구경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교회 건물을 보러 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작년에 여러분이 훌륭한 기공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내부를 보기 원합니다. 좋은 건물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저는 저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이 건물을 보는 데 흥미가 있습니다."라고 한 여성은 말했다. 그녀는 여러 시간 동안 질문을 했고,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매우 감동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 새 건물은 약간의 항의를 일으켰다. "두 사람이 건물 밖에 서서 비를 맞으며 여섯 시간 동안 반몰몬 책자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딱한 생각이 들어서 과자를 두 접시 담아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멜리사의 쌍둥이 형제 션이 말했다.

그 와드는 일반 공개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라 살르의 시장, 시장의 자문회, 토건업자, 설계자, 건축가, 그리고 그 건축에 관계되었던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만찬을 베풀었다.

"만찬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서 우리는 시종 일관 긴장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역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를 인정하는 좋은 조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션은 말한다. □

코끼리의 돌격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해서라면,
저는 코끼리만큼이나 둔감하였습니다.**

테리 레이드
그림: 리차드 헐

교회의 회원이 되고 나서,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형편 없이 지냈습니다. 특별히 저의 친구들에 대하여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제가 찾은 것,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느끼는 내적인 평화와 기쁨을 찾은 것이 더할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회복된 복음과 그 가르침에 대하여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의 설레임으로 저는 저의 비회원 친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때마다 그들에게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코끼리만큼이나 둔감하게 돌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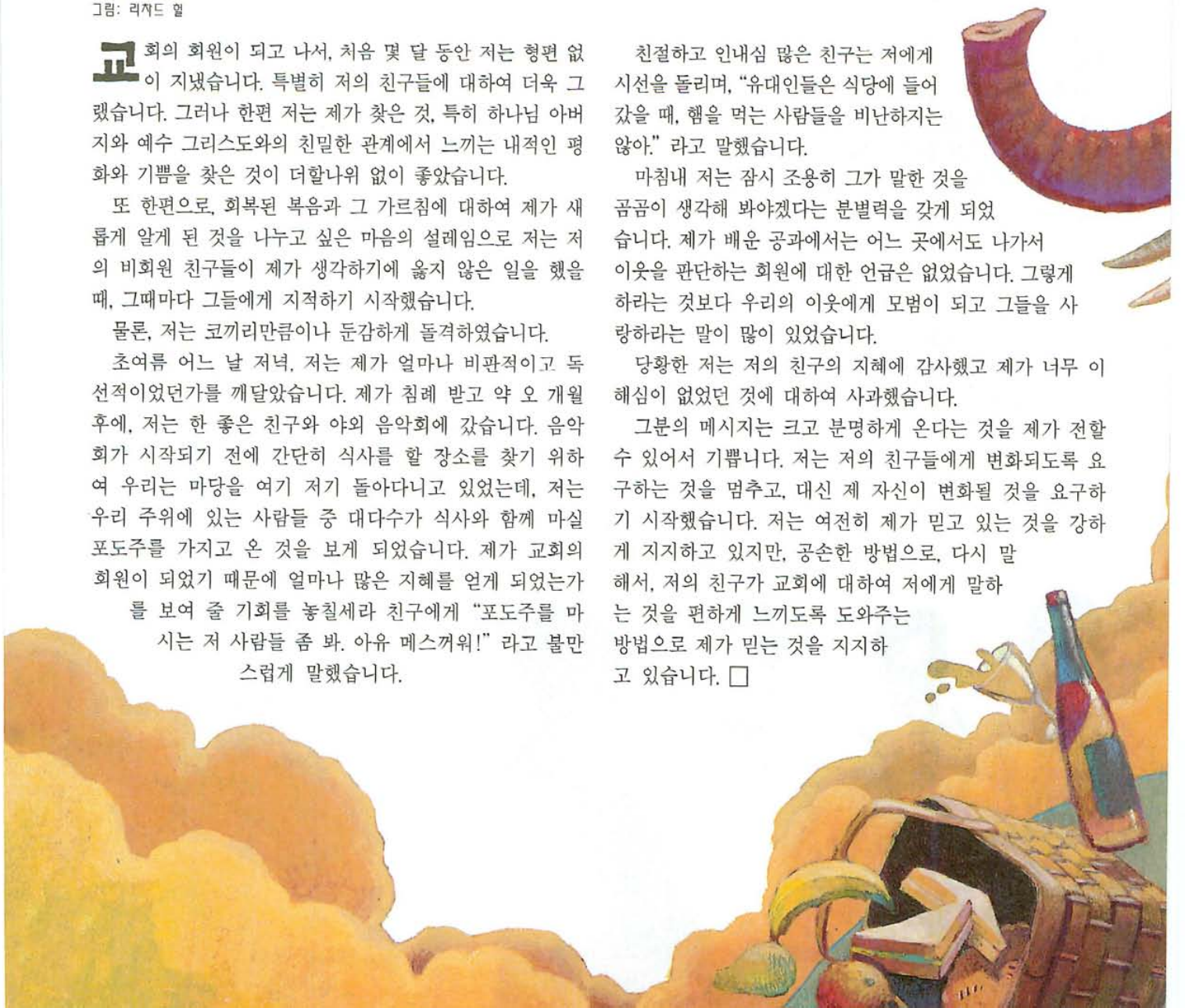
초여름 어느 날 저녁, 저는 제가 얼마나 비판적이고 독선적이었던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침례 받고 약 오 개월 후에, 저는 한 좋은 친구와 야외 음악회에 갔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간단히 식사를 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마당을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식사와 함께 마실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를 보여 줄 기회를 놓칠세라 친구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저 사람들 좀 봐. 아유 메스꺼워!" 라고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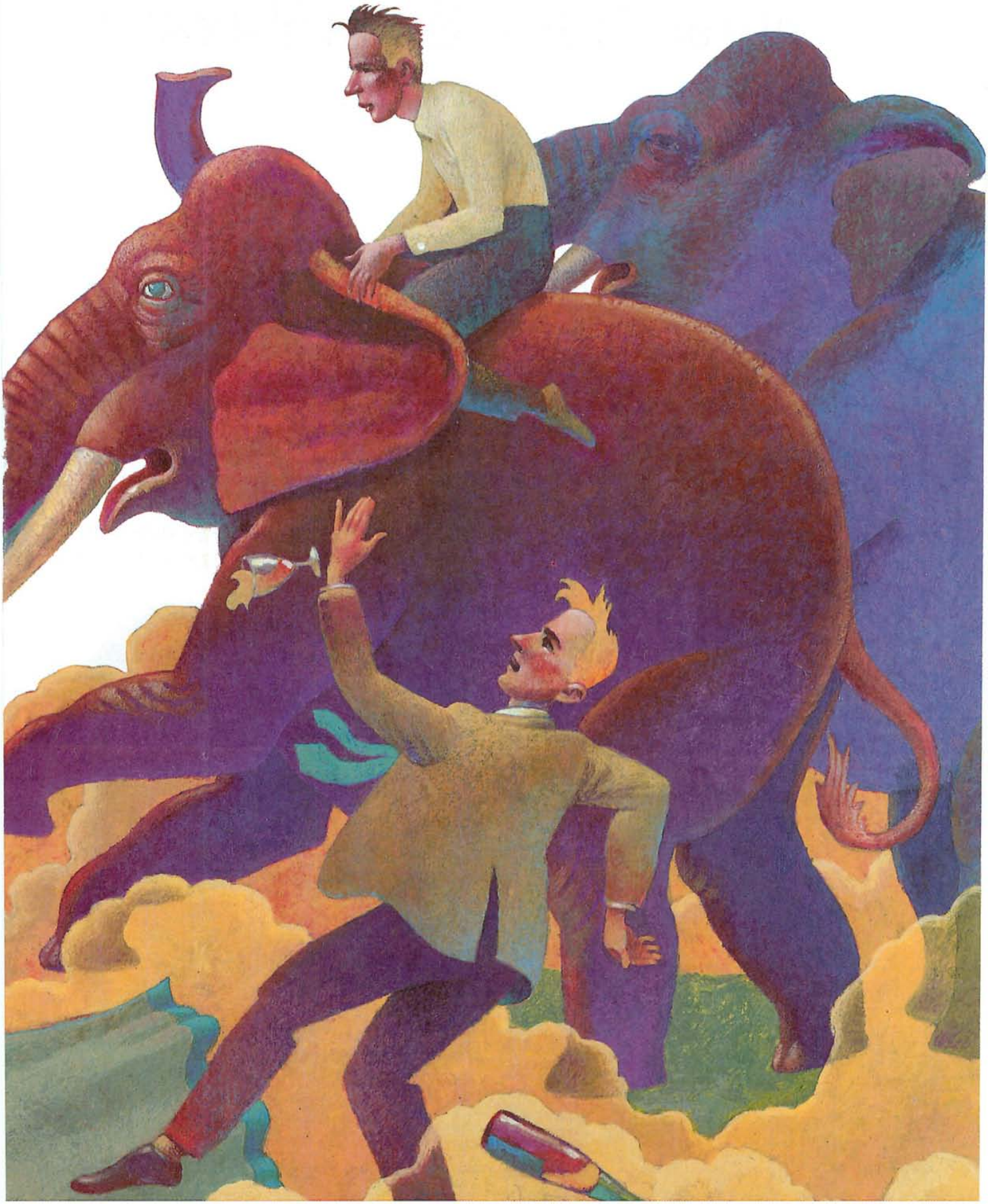
친절하고 인내심 많은 친구는 저에게 시선을 돌리며, "유대인들은 식당에 들어갔을 때, 햄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는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잠시 조용히 그가 말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공과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나가서 이웃을 판단하는 회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 우리의 이웃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저의 친구의 지혜에 감사했고 제가 너무 이해심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사과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크고 분명하게 온다는 것을 제가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저의 친구들에게 변화되도록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제 자신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믿고 있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공손한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저의 친구가 교회에 대하여 저에게 말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제가 믿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베스 데일리

저는 인간이 평범한 소재로부터 창출해 내는 아름다움에 정말로 놀랍니다. 한정된 음으로부터 나오는 교향곡. 단 세 가지 기본색 그림 물감만으로 창조되는 경탄을 자아내는 그림들. 꿈과 희망이 보잘것 없는 자투리 천에 정겹게 수놓아져 꾸며진 조각 이불. 예술가의 재료는 좀처럼 독특하거나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 재능, 수고, 그리고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감정가의 눈이 아니라 신의 분별력으로 보심에 대하여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술적인 재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것을 비범한 예술 작품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봉사라는 교향곡과 친절이라는 발레와 성실이라는 조각을 보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모든 작가들이 배출되기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에게 경전을 읽도록 충실하게 가르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술관에 전시된 귀중한 그림을 그린 각 화가들이 탄생되기 위하여, 희생과 헌신의 생애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든 작곡가 뒤에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의 찬송가로 엮어진 생애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모든 충실한 가족은 천국을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직한 노력은 신앙과 희망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입니다. 모든 유덕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입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자기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2:19) □

그림: 글렌 에스 홉킨슨, *서서히 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함*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강제로 쫓겨난 첫번째 말일성도 대대는 1846년 2월에 미주리 강을 건너 아이오와 남동쪽에 있는 슈거 크리크 옆에서 야영을 했다. 눈이 쏟아지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방심하지 않는 철저한 경계 하에서 그 곳으로부터 서부로 2,000 킬로미터의 여행을 시작했다.

그림: 레논과 수잔 레드베터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유적지가 많은
캐나다의 퀘벡에서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구세주를 기억하고
자신의 침례 성약에
따라 생활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저는 기억합니다",
40쪽 참조

4 15979 88320 0

97988 320